

'94 히로시마를 향하여

—아시아 게임 경기종목 채택의 뒀안길에서—

이 봉

대한태권도협회 총무부장

1991년 6월, 1년전 여름이었다.

350만 한국 태권도 가족들은 낙망과 무력감을 맛보아야만 했었다.

주요 일간 신문들은 태권도의 올림픽 경기종목 채택의 실패를 연일 대서 특필하였다.

언론은 흡사 우리 한국의 체육문화를 올림픽 제전에 등장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해온 것처럼 태권도계와 체육청소년부를 질타했었다.

우리 태권도 단체의 수장(首長)들은 물론이고 대책없이 막연한 기대만 보여온 체육정책의 오류와 방식에 대해서도 가차없는 비판을 퍼부었었다.

그로부터 1년 후인 이번 여름, 다가오는 1994년 제12회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서는 태권도가 경기종목으로 채택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나누게 되었다.

김운용 IOC 집행위원, 김종렬 KOC위원장, 이진삼 체육청소년부장관, 최세창 대한태권도 협회 회장, 최원영 아시아 태권도 연맹회장(가나다 순)의 다섯분이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 태권도가 채택되도록 애쓰신 은인들이다.

특히, 우리 언론들은 태권도를 육성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지면을 통하여 연일 강조해 줌으로써 국민여론을 태권도 지지의 열기로 몰아 주었다고 생각되었다.

체육청소년부, KOC, WTF, ATU, 그리고 우리 협회의 주요 간부진들이 밤낮없이 동분서주한 것은 물론이다. 이 자리에서 모두를 열거할 수는 없지만 체청부의 오지철 국제국장, 전영재 해외협력과장, 박도경 사무관, KOC의 최만립 부회장, 이종택 상임위원, 김성규 본부장, 방광일 부장, 윤강로 과장 등, WTF의 이금홍 사무 총장, 송상근 사무차장, ATU의 이규석사무총장 그리고 우리협회의 홍중수 부회장, 강원식 전무이사, 임춘길 사무국장, 노우종 운영부장 등이 이번 쾌거의 뒀안길에서 노심초사하신 분들이다.

필자는 이번일에 실무자로서 참여하면서 느꼈

**'94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도
OCA와 일본 조직위에서는 태권도를
제외하고 가라테 도를 채택했었으나
우리 협회의 비상한 노력과
유관기관의 철저한
외교적 노력으로 OCA와 히로시마
조직위원회에서 태권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된 것**

던 몇가지 소감을 기록으로 남겨서 차후에도 국제 관계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모 저모를 기고한다.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외교력이란 결코 단시일 내에 축적되어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깊이 알게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얼굴 익히기가 아니라 행사할 수 있는 권위(=權力)를 바탕으로한 조정과 타협의 전문적 기술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제 무대에서는 일방적인 요구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줄것은 주고 받아낼 것은 틀림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만이 통용되었고 이 점은 우리 태권도계에서도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되었다.

특히나 예산의 적절한 지원없이 국제무대에서 초라한 행색을 모면할 길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 일만해도 히로시마 조직위원회나 OCA(아시아 올림픽평의회)의 핵심간부들과의 공식·비공식 연회비용이나 선물들에 막대한 경비가 투입되었으리라는 점을 엿볼 수 있었다.

우리의 딱딱한 정부 재정이나 스포츠 단체의 취약한 재무구조로 볼때 그 누가 선뜻 불확실한 게임에 투자할 것인가?

이런 점들도 우리 태권도인들이 간과해서는 안되리라. 이상과 같은 단상들을 떠올리면서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요약한다.

**I.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 태권도 채택
이 되기까지**

제12회 아시안 게임은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1994년 10월 2일 부터 16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여기에는 OCA회원국인 37개 NOC(국가 올림픽 위원회)에서 파견하는 선수단이 참가하여 태권도를 비롯한 34개 종목의 경기대회가 열리게 된

다.

우리의 태권도는 '86서울 아시안 게임에 처음 채택되어 남자 8체급 경기를 치루어 금메달 7개를 획득함으로써 한국이 종합2위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90 북경 아시안게임에서는 중국의 우슈가 경기종목으로 채택된 반면 태권도는 제외되었다.

'94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서도 OCA와 일본 조직위에서는 태권도를 제외하고 가라테 도를 채택했었으나 우리 협회의 비상한 노력과 유관기관의 철저한 외교적 노력으로 OCA와 히로시마 조직위원회에서 태권도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된 것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일본측 조직위원회에서 중국과 목계하에 "우슈"를 채택한 댓가로 "가라테 도"를 채택하는 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판단되었

다. 우리 협회는 '91년 9월부터 이에 대한 국제정보를 수집하여 일본과 중국측의 목계가 드러나는 시점인 '92년 1월 경부터 태권도 채택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을 주로 한 대책을 수립하였다.

'92년 2월에 열린 우리 협회 이사회에서 최세창 회장은 태권도의 아시안게임 채택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필히 성취할 것이라고 다짐한 바 있었다. 이어서 정기 대의원 총회에서 조영기감

사는 다시한번 이 문제를 강조하여 대의원 전원이 집행부와 합심하여 이의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 2월28일에는 강원식 전무이사가 최세창 회장의 지시에 따라 체육 청소년부 이진삼 장관과 당시 김용균차관에게 장관실에서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태권도 채택에 관한 보고”를 한 바 있었다.

이에따라, 3월6일 11시 올림픽 파크텔 스포츠센터 클럽에서 체육청소년부, KOC, WTF, ATU, 우리협회의 5개기관 연석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장에 아시아 태권도 연맹의 최원영회장, 간사에 대한체육회 김성규 국제본부장을 내정하였다.

이어서 3월9일에는 체육청소년부 국제체육국장실에서 제2차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동권 및 동남아에 파견할 순회 사절단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중동권 및 인도에는 김성규, 송상근 2인이, 동남아에는 이종택, 이규석 2인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여 4월 초에서 중순까지 모두 9개국을 순방하여 4월22일 히로시마에서 개최된 OCA총회 시 태권도의 아시안게임 경기종목 채택의 지지를 확약받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 주요 일간지 등 언론과 방송에서는 연일 태권도의 아시안 게임 채택의 중요성과 우리 체육계의 불성실한 대응자세 등을 비판하였다.

대부분의 업무 관계자들과 언론의 출입기자들 그리고 추진위원회의 주요 참석자들 까지도 태권도의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의 채택 전망에 대하여 비관적이었다.

김용운 IOC집행위원은 일본의 각계 유력자들과의 친분과 국제 스포츠계에서의 「톱·매니지먼트」의 지위를 심분 활용하여 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로서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보여진다.

최원영 ATU 회장은 순회사절단에 대한 지원과 아울러 히로시마 OCA총회 현장에서의 조용한 외교활동으로 추진위원 전원의 원활한 「코디네이

한국 스포츠 외교사상 저 유명한 바덴바덴 IOC총회에서 올림픽의 서울유치결정 이후에 이번처럼 내노라하는 우리 체육계의 주요 인사들이 서로 협조하여 현신한 사업이 또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만큼 모두들 수고

선」을 이끌어내었다.

체육청소년부에서는 막후에서 외교「채널」을 최대한 가동시켰으며, 순회사절단에 대한 왕복항공료와 체재비 등을 지원하였다.

KOC는 이번회의 전면에서 직접 비바람을 맞으며 최선을 다해 주었다.

우리 협회는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적절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원하였다.

이렇게 다양하고 종합적인 협조체제가 협응하여 안되는 일이 있을까?

한국 스포츠 외교사상 저 유명한 바덴바덴 IOC총회에서 올림픽의 서울유치결정 이후에 이번처럼 내노라하는 우리 체육계의 주요 인사들이 서로 협조하여 현신한 사업이 또 있었을까라는 의문이 생길만큼 모두들 수고 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우리 협회 최세창회장이하 350만 국내 태권도 가족의 열화와 같은 성원과 관심이 우선되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결국, 4월 22일 OCA총회에서 표결에 불이기를 꺼려한 OCA회장과 히로시마 조직위원회 측의 타협안을 받아들여 태권도, 세팍타크로, 카바디의 세 종목에 관한 종목추가 결정은 OCA회장과 조직위측에 일임하기로 하였다.

4월 23일 12시, 드디어 세이크 아마드 파하드 OCA회장은 태권도·세팍타크로·카바디의 세 종목을 추가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세팍타크로를 열광적으로 즐기는 태국에서는

부미폰 국왕이 일본 국왕에게 친서를 보내어 이의 채택을 강력히 요청하였다는 후문이 있는 것을 보면 이번 OCA총회에서 태권도채택이 얼마나 어려운 과제였는가를 시사한다 하겠다.

II.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의 태권도 채택의 의미

잘 아는 바와 같이 태권도는 한국의 유구한 민족 문화의 소산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20세기가 열리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로 말미암아 한민족 전통문화가 말살되어 우리말, 우리글은 물론 5,000년 민족 문화의 전통이 급기야는 황폐하게 되었다.

부인할 수 없이 우리의 선배 무도인들은 가라테를 배웠고, 당수도, 권법, 화수도, 공수도, 태수도 등의 여러가지 명칭이 1945년 해방후부터 50년대에 이르기 까지 난무하였다.

1961년에 대한태수도협회의 창설이후 1965년에 대한태권도협회로 개칭한 이래 고유한 민족무예인 태권기술과 용어의 흡수와 새로운 태권도 기술체계와 용어의 정비 등을 거쳐 비로서 오늘날의 태권도로 부활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월남전에서 위명을 떨친 것을 계기로 70년대 이후는 본격적으로 국제화의 길을 달려와 이제 한국의 무술 스포츠 태권도는 올림픽 무대에서 새롭게 각광받는 동양 스포츠로서 뿐만 아니라 엄격한 무도 예절로 표현되는 인격도야의 체육적 수단으로서 지구촌 120여개 국에서 사랑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중국사람들은 태극권의 아류로 부르고 있으며, 일본사람들은 가라테의 모방으로 폄하하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태권도의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이 중국의 우슈, 일본의 가라테와 비교하여 빼어남을 자랑할 수 있는 다시없는 기회라고 생각된다.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 태권도가 채택된 것은 단순히 금메달 몇 개를 조국에 헌상할 수 있는 영예로운 기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일본 무사도 문화나 중국 무술문화의 기형아가 아닌 한국의 창조적 스포츠 문화로서 태권도가 그 우위를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기회로 우리는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연무시범(練武示範)정도의 비체계적이고 과장이 많은 비현실적 동작 위주인 타 무술 스포츠 보다는 실전적이고 박진감있는 태권도의 경기 기술과 과학적인 경기제도의 체계적 운영이 돋보일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것이다.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에 태권도가 채택된 것은 단순히 금메달 몇 개를 조국에 헌상할 수 있는 영예로운 기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아직도 일제의 잔재로 우리의 정신과 문화속에 끈덕지게 남아있는 식민주의와 군국주의의 병폐를 극복하는 민족문화사적인 계기가 된다는 데 참뜻이 있다고 본다.

일본 무사도 문화나 중국 무술문화의 기형아가 아닌 한국의 창조적 스포츠 문화로서 태권도가 그 우위를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는 역사적 기회로 우리는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선하고 감각적으로 호소력이 있는 경기운영과 아름다운 시설과 장비의 조화, 그리고 다양한 관중 서비스와 T·V시청자를 고려한 경기규칙과 판정 등 지금까지 국제화의 역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을 대대적으로 보완하여야만 한다.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의 성공적 개최를 통하여 이제 남은 2,000년대 올림픽의 경기 종목으로의 도약에 필요한 역량을 축적하는 것이 참된 의의라 할 수 있다고 본다.

**국제 스포츠 무대는
자금, 인력, 정보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부족하여도 생존하기란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

Ⅲ. 이번 일이 남긴 교훈들

필자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국제 무대의 냉엄한 현실 앞에서 한국 태권도계가 냉철한 판단과 구체적인 대응력을 길러 나아가야 함을 다시한번 절실하게 느꼈다고 토로한다.

태권도계의 주장이 자칫 객관성을 잃거나 논리적 당위성이 부족한, 일방적인 것이라고 국제스포츠 외교무대에서 무시당한다면 사실상 아무런 대응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제 스포츠 무대는 자금, 인력, 정보의 전쟁터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 한 가지만 부족하여도 생존하기란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번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의 태권도 채택은 관계된 모든 이들이 합심·노력한 성공작이었지만, 몇가지 아쉬운 점들도 있었고 우리는 이를 되풀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첫째는, 국제스포츠, 정보에 대한 취약성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누군가가 잘 알아서 한국 태권도를 위하여 헌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급격히 팽창하는 국제화 시대에 국제 정보는 스포츠·정치·경제·사회의 구분과 영역을 무시한 채 갖가지 형태로 우리 앞을 스쳐지나간다. 우리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국제 정보수집·분석·정리의 능력을 보유하여야만 할 것이다.

OCA, 히로시마 조직위의 동태, KOC의 활동상황 등에 관한 국제정보에서 태권도 단체는 소외되었고 그에 따라 정확한 판단이 매우 어려웠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태권도계의 주요 직책에 있는 인사들 OCA나 KOC에 진출시켜 아시아 권역내에서 태권도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외교체널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국제 정보 소통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정례적인 관계기관 회의 개최나, 국제정보 회람(Circular Note)의 발간 등을 통하여 최근의 국제정보 동향을 공유한다면 관련단체의 협조 분위기나 협응능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서는 국제 스포츠 정보 데이터 베이스 (International Sport Information Data Base)와 같은 컴퓨터 시스템을 설치 가능하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둘째, 국제적 감각을 길러야 한다는 점이다.

복잡다기화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우리 몫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언어·문화·인맥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구비해야만 할 것이다.

한국을 대표할 만한 국제 스포츠 외교가(外交家)로서 사실상 김운용 IOC 집행위원(세계 태권도 연맹 총재)을 꼽을 수 있으나 모든 일을 김 위원에게만 짐 지울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김 위원을 도울 수 있는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에는 태권도계가 솔선해야만 할 것이다.

특히, 국제스포츠계의 치열한 경쟁체제 내에서의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 안목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새로운 스포츠·문화 사업가로서 자금력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나쳐서는 안되리라 생각되는 것이다.

오늘도 우리 곁을 스쳐지나가는 수많은 국제적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며 이를 한국의 것으로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보력과 국제 감각이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한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창출해 낼수 있는 전문인력을 국제 스포츠 기구에 적극 진출시키고 우선 태권도 주요 단체의 인력이 국제감각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풍부하게 제공해야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날 갑자기 우리 앞에 닥친 국제적 도전의 기회 앞에서 태권도계가 일방적으로 무력해서는 중주국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셋째, 계획적·조직적 사업 수행능력을 길러야 한다는 점이었다.

'92년 4월의 OCA 총회를 불과 두달 앞두고서야 태권도 채택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여 비록 성공은 했으나 이런 방법은 국제무대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공식 서한을 통하여 상호의견 교환을 하는 일반 관례로 본다면 이번 일은 무모할 만큼이나 가능성이 희박한 모험이었다고 볼 수 있다. 비록 팩시밀리나 텔렉스를 통한 즉각적인 통신은 가능하지만 격식을 따지는 국가 단위의 스포츠 외교에서 일방적으로 저급 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관례를 무시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순회사절단의 파견 역시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긴 했지만 무조건 쳐들어가는 식의 방포외교는 의견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번 문제 역시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 태권도를 경기종목으로 채택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유관기관의 다각적인 의견교환과 역할분담이 선행

이번의 성공을 새로운
도전에의 의욕으로 승화시킨다면
한국 태권도의 숙원인 올림픽
경기종목 채택 역시
불가능하지만은 않을것

되었어야만 한다고 생각되었다.

이번 성공담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는 태스크 포스(TASK FORCE)의 운영방식을 도입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어느 특정기관만의 업무영역에 국한되지 않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관련조직의 유능한 인력을 파견하여 잠정 조직을 편성하여 관련 기관의 역량을 적절히 배분·동원하여 성과를 거두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의 아시안게임 태권도채택 문제만 하더라도 KOC의 단독적인 접근에만 책임을 전가하기 보다는 WTF, ATU, 협회가 공동으로 협력하고 전체적인 전략적 판단과 조정역할을 체육청소년부터에서 지원하였다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맺을수도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

아름든 바람 끝에 물리어 피력을 발휘한 태권도계와 체육계의 역량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리라고 생각한다.

체육청소년부터, KOC, WTF, ATU 그리고 우리 협회의 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하였고 한 뜻으로 뭉쳐 어려운 과업을 성취해 내었다.

이번의 성공을 새로운 도전에의 의욕으로 승화시킨다면 한국 태권도의 숙원인 올림픽 경기종목 채택 역시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어린이와 태권도 수련

태권도 도장의 수련생 대부분이 어린이들이다.

태권도장에 어린이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태권도가 어린이의 성장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본 기획은 이러한 궁금함을 풀어주고 어린이의 태권도 지도를 책임지고 있는 사범들이 태권도 수련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태권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도해야 할 것인지 점검해 보았다.

1. 태권도 수련과 아동의 성장 발달

김기웅/ 이화여대교수

2.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의 심신발달에 미치는 영향

선병기/ 고려대 교수

3. 어린이 태권도 프로그램의 구성원리와 지도방법

강신복/ 서울대 교수

태권도 수련과 아동의 성장 발달

김기웅

이화여대 교수

• **김기웅**

서울대 사범대 교육학과, 동 대학원 졸업
(체육교육전공)

미 플로리다주립대학(행동과학전공)

박사학위 취득

현재 이화여대 체육학과장.

대학체육회 스포츠과학 분과위원.

한국체육학회 스포츠심리학위원장.

서

현대는 스포츠의 시대이고, 현대사회는 스포츠의 사회이다. 따라서 현대사회에 몸을 담고 있는 우리 인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스포츠에 직·간접으로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스포츠의 영향권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때까지 우리는 신문·잡지, 방송, TV 등의 매체를 통해서 항상 스포츠정보의 피부에 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때 어디에서든 스포츠활동의 경험을 하게 될 가능성에 밀착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운동(스포츠)를 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든 아니면 여가시간을 즐기기 위해서든. 그래서 요즘은 생활체육, 사회체육 또는 평생체육 등의 말이 유행어처럼 우리의 귀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말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된 것은 사실 88이후의 일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 또한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소득수준의 증가와 여가시간의 증대라는 현실과 아주 잘 조화되어 날로 확산, 활성화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생활속의 체육에 대한 요구는 남녀노소 모두에게 절실하게 싹트고, 자라고 있다.

생활체육과 아동

원래 생활체육이 대두된 것은 공교육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체육활동을 받지 못하는

사회인, 직장인의 건강증진과 여가활용 등을 염두에 두고 학교교육외적인 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체육을 의미하는 데서였다. 그래서 그 주 대상이 학교교육의 장에서 떠난 일반사회인, 직장인 등이었다. 물론 여기에는 연령적 제한을 두지 않은 개념이 밑바탕에 깔려있다. 따라서 학교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된다. 노인, 아동을 포함하여...

또한 내용면에 있어서도 생활체육은 학교체육과 약간의 차이가 필요조건으로 부수한다. 학교체육과 본질적으로 달라야할 이유와 근거가 없으면 서로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은 학교체육과는 다른 것으로 인지되고 있다. 그러나 생활체육이 학교체육과 그 내용면에서 차이가 있다면 그것은 상황적 여건에서 유발되었을 뿐이다. 학교교육에서 처럼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확보되어 있지 못한 현실 때문에 내용면에서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이 표면적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학교체육을 돌이켜 보면 실로 생활체육의 필요성은 원래 그것이 뜻하는 대상인 사회인, 직장인에게 보다는 오히려 공공교육기관에서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에게 더욱 절실하다. 임시지옥에 빠져 오직 삼급학교 진학만을 필생의 업인것 처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책과 씨름하는 어린 아동과 학생들에게서 소위 현대병인 당뇨병이나 비만증 그리고 그것에 부수하는 각종 심장질환이 위험수위에 도달한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그렇다면 결국 생활체육은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과 학생들에게 더욱 더 절실한 요구의 대상이다. 특히 건강하고 씩씩하게 자라나야 할 아동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아동을 위한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

그렇다면 한창 자라나는 아동에게 학교체육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신체활동으로서 무엇을 시켜야 하고 어떻게 시키는 것이 좋은가? 이 질문에

신체활동의 부족과 건전한 사회성 함양기회의 결핍으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 학교교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하나의 대안적 해답은 태권도라는 스포츠에서 찾을 수 있다. 태권도는 신체단련의 도이다. 이를 통해 강인한 체력을 배양할 수 있고 건전한 사회성, 지도성, 인내심 등 바람직한 정적적 특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대한 대답은 무수히 많을 수 있다. 작금 유행하고 있는 각종 팀스포츠로서의 구기운동은 가장 쉽게 머리속에 떠오르는 해답이다. 그러나 신체활동의 부족과 건전한 사회성 함양기회의 결핍으로 특징지어지는 오늘날 학교교육의 현실을 감안할 때 하나의 대안적 해답은 태권도라는 스포츠에서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태권도는 일반 공공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기타 운동프로그램과 비교하여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제약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종목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태권도가 어떤 종류의 스포츠인가에 대해서는 세삼 언급하거나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단지 태권도가 과연 아동을 위한 생활체육 활동으로 왜 좋은지 또는 어떤 해는 없는 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뿐이다. 왜냐 하면 태권도가 아동의 건전하고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유해할런지도 모른다는 기우나 근거없는 우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태권도는 신체단련의 도이다. 이를 통해 강인한 체력을 배양할 수 있고 건전한 사회성, 지도성, 인내심 등 바람직한 정적적 특성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즉, 이러한 태권도 훈련이 갖는 의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건해 볼 수 있다.

태권도의 신체발달적 가치

태권도 수련이 아동에게 주는 의미는 우선 첫째



도장에서 태권도를 수련한 어린이들이 국기원에서 심사를 받는 모습.

로 신체적 성장과 운동적 발달에 주는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아동이란 대체로 실연령이 6세에서 12세 정도까지의 어린이를 말하며 이는 우리의 학교수준으로 말하면 국민학교 어린이가 그 대상이 된다. 이시기의 어린이는 신체구조적으로 그리고 신체기능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는 시기에 속해 있다. 골격과 근육의 양적, 질적 증가가 급격할 뿐만 아니라 신장, 체중 등의 체격요인에 있어서도 변화가 심한 시기가 바로 아동시기이다.

따라서 정상적이고도 균형있는 신체적 발달을 위한 조건이 갖추어 져야 함은 당연한 논리이다. 충분한 영양 섭취가 이루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적 자극으로서 아동기의 특성에 맞는 신체활동(운동)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 바로 태권도 수련이 교육적으로 아동기 어린이의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동시에 아동을 위한 생활체육으로서 태권도가 아동의 정상적인 신체 발달에 유해한 악영향은 없는지의 의문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태권도가 표면적으로는 많은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상해의 위험이 많은 과격한 운동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원만한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는 자연적인 성숙 요인과 환경적인

원만한 신체적 발달을 위해서는 자연적인 성숙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영양섭취 및 적당한 운동은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 그리고 태권도와 같은 특수한 운동은 아동기 어린이의 구조적, 기능적 발달에 필요조건이며 자극이라는 말이다. 태권도와 같은 운동이 아동기의 어린이에게 유해한가의 문제는 태권도 운동 그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것의 실천방법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

요인으로서 영양섭취 및 적당한 운동은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운동, 그리고 태권도와 같은 특수한 운동은 아동기 어린이의 구조적, 기능적 발달에 필요조건이며 자극이라는 말이다. 환언하면, 골격과 근육 및 기타 신체의 구조적, 기능적 차원의 발달을 위해서는 태권도와 같은 운동자극이 필요하다는 얘기이다. 결국 태권도와 같은 운동이 아동기의 어린이에게 유해한가의 문제는 태권도 운동 그 자체의 특성으로부터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그것의 실천방법에서 비롯될 가능성이 있다.

태권도의 심리·사회발달적 가치

모든 종류의 운동이 건강증진과 체력단련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기의 어린이에게 태권도 수련이 갖는 의미는 신체발달적 측면 그외에서 더욱 더 크게 나타난다. 아동기의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신체외적 가치는 바로 건전한 정신과 사회성, 도덕성 등의 심리·사회적 측면에 있

다.

오늘날 우리의 아동은 학교라는 환경속에서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입시위주의 교육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교과서를 통한 지식위주의 교육에는 능숙해져 있는 반면 덕과 체의 교육문제는 경시 또는 무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아동의 건전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한 교육적 장은 없으며 기회는 박탈된 상태이다. 덧붙여 사회성, 지도성, 인내심, 예의 등등과 같은 심리·사회적 특성은 교과서 교육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사실과 이러한 특성들이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아동기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아동기의 사회체육으로서 태권도는 바로 아동의 건전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위한 최상의 도구이며 수단이 되는 운동이다. 오늘날 어린이와 같이 과잉보호되는 아동에게 강한 정신력과 투지를 길러 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도덕성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다는 한탄과 자성의 목소리가 그어는 때보다도 높은 이 시대에 아동에게 예의와 겸손, 정직과 성실, 용기와 인내심, 책임과 협동 등을 가르칠 수 있는 최상의 수단은 무엇인가? 그답은 태권도 수련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과잉보호되고 있는 오늘날의 어린이들에게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워 주는 데에는 태권도와 같은 개인운동이면서도 대인운동, 단체운동의 성격을 가진 운동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일 것이다.

결

오늘날 우리의 어린이들이 처해있는 시대적 상황은 과도한 지적 성취 요구로 인해 공부, 공부라는 소리에 쪼들려 압도당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성장기에 속해 있는 아동의 속성과는 너무나도 극단적인 반대현상이다. 한마디로 씩씩하게 뛰어놀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나이의 아동에게 우리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하고 과잉보호되고 있는 오늘날의 어린이들에게 독립심과 자립심을 키워 주는 데에는 태권도와 같은 개인운동이면서도 대인운동, 단체운동의 성격을 가진 운동이 무엇보다도 효과적일 것이다.

는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겨 줌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한 아동을 만들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마저도 두려움 없이 저지르는 아동으로 성장시키고 있다. 이는 연이어 문제 청소년의 기초를 닦는 어린이라는 사고를 전개해 볼 때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

한가지 음식과 한가지 약으로 모든 병을 퇴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린이의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발달 특성과 요구에 맞는 활동을 통해서 오늘날 어린이의 불행은 해소시켜 줄 필요가 있다. 그 하나의 대답은 아동의 발달적 요구가 희망하는 대로 뛰어 놀게 하고 건전한 스포츠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있다. 아동의 학교의 생활체육으로서 태권도는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이다. **▶▶▶**

참고문헌

- 김기웅(1986). 아동체육, 서울: 한국사회체육진흥회.
- Smoll, F. L., Magill, R. A., & Ash, M. J. (1988). Children in sport(3rd, ed).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Thomas, J. R.(1984). Motor development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Minneapolis, MN: Bruges.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의 심신발달에 미치는 영향

I. 서론

태권도수련이 어린이의 심신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기 위해서는 태권도의 역사라든가 특성, 가치성 등에 관해서 먼저 서술하는 것이 당연한 순서이겠으나 이 분야에 관해서는 이미 수 없이 발표된 바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어린이」란 말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어린이」의 개념과 연령적 한계를 정확하게 규정짓기란 매우 어려운 점이 있다. 또 이와 유사한 말로 「소아」, 「아동」, 「소년」이란 용어도 있다.

예를 들면 의학적 측면에서의 소아라 하면 6세부터 16세 미만까지를 뜻하고, 교육학적 측면에서의 아동이라 하면 주로 국민학교 학생층(6~12세)을 의미하고, 법학적 측면에서의 소년이라 하면 9세부터 19세까지를 뜻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의 심신발달(心身發達) 영역도 매우 광범위하다. 우선 심신발달의 영역만 보더라도 정신적 발달, 심리적 발달, 성격적 발달 등 여러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으며, 신체적 발달의 영역에 있어서도 체격적 발달, 체력(체능)적 발달, 운동능력 발달 등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는 문제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어린이의 연령적 한계를 편의상 국민학교 취학 전기인 5세부터 12세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그리고 신체적 발달은 주로 체격발달(신장, 체중, 흉위, 좌고)에 관해서 중점적



선병기

고려대학 교수

으로 다루고, 심적 발달은 성격적 발달 영역에 국한해서 언급하기로 한다.

II. 태권도와 성격형성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들의 정신적 발달이라든가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 필자가 제1회 세계태권도학술대회(서울)에서 발표한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 성격 형성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서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국민학교 5~6학년 남자(10.5~11.9세) 가운데서 태권도 수련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어린이 68명(5학년 36명, 6학년 32명)과 수련 경험이 전혀 없는 어린이 80명(5학년 20명, 6학년 60명)을 대상으로 하여 人性檢査(정범모 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이 나타났다(이 검사지는 활동성, 지배성, 안정성, 충동성, 사려성, 사회성 등 6가지 특성을 검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래 표 1에 나타난 결과를 볼 때 지배성에 있

어서는 양 집단 간에 별 차이가 없으나 안정성, 사려성, 사회성에 있어서는 태권도 수련 경험이 있는 집단이 비수련 집단보다 점수가 높고, 활동성, 충동성에서는 낮은 점수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는 有意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6가지 특성이 全國規準 百分位の 25~75% 범위 내에 해당하는 점수이면 성격상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볼 때 이 양집단 어린이의 성격특성은 모두 적정수준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태권도 수련 경험이 있는 어린이의 사회성이 유난히 전국규준의 적정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는 것은, 본래 사회성이 우수한 어린이가 태권도를 좋아하는 데서 온 결과인지, 아니면 태권도 수련의 결과로 인해서 사회적 특성이 높아진 것인지에 관해서는 좀 더 검토해 볼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편 선상규의 「태권도 수련(교육)이 유아의 성장 및 성격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결과에 의하면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의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즉 그는 수련집단(18명)과 비수련집단(20명)에게 위와 같은 6가지 성격특성 검사를 事前·事後 두차

표1. 성격특성 검사 결과

(N=148)

성격특성	집 단	M(±SD)	t	전국규준(%)
활동성	수 련	11.15(4.80)	-1.57	60
	비수련	13.26(3.84)		70
지배성	수 련	10.94(3.86)	0.06	55
	비수련	10.96(3.99)		55
안정성	수 련	14.12(5.20)	3.58*	60
	비수련	11.29(4.41)		35
충동성	수 련	9.28(4.51)	-3.51*	40
	비수련	11.78(4.13)		60
사려성	수 련	13.47(4.01)	1.50	55
	비수련	12.49(3.92)		45
사회성	수 련	15.84(3.61)	3.59*	77
	비수련	13.68(3.68)		60

래에 걸쳐서 실시하여 前·後 비교 해 본 결과, 사전에는 사회성 점수가 비슷하였으나 수련 6개월 후에는 수련집단이 비수련집단보다 약간 높아졌다는 보고를 감안할때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논리라고 본다.

III. 태권도와 신체적 발달

태권도 수련 결과가 어린이의 신체적 발달이라든가 체력 내지는 운동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도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 崔仁範(경기대 교수)·安容奎(체과대교수)의 「태권도 수련이 아동들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서 주로 체격(신장, 체중, 흉위, 좌고) 발달상향과 「교육부 통계연보」의 같은 연령층의 발달상향을 견주어 살펴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단 이들은 다 같이 1985년도의 자료이기는 하지만 각기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 즉, 崔 등의 자료는 동일대상자를 2년 간에 걸쳐서 종단적으로 조사한 것

이고, 교육부 자료는 10세와 11세 어린이를 동시에 횡단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한편 이 두가지 자료를 가지고 1년간의 체격 발달 차를 비교해 보면 표3과 같다.

표2와 3을 통해서 보면 신장발달에 있어서는 태권도 수련아가 비수련아에 비해서 0.5cm가 증가한 반면에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는 약 1.3cm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체중에 있어서는 수련아가 비수련아나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증가의 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권도 운동을 계속 실시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 밖에 흉위와 좌고에 있어서도 수련아와 비수련아(서울 거주)가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발달의 폭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와 같은 결과에서 태권도 수련아가 비수련아에 비해서 신장은 0.5cm가 더자라고 체중은 0.5kg이 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고, 서울 거주 아동이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체격발달이 양호한 것을 알 수 있다.

표2. 태권도 수련아와 비수련아의 신체발달 비교

(M±SD)

구분	연령	체격			
		신장(cm)	체중(kg)	흉위(cm)	좌고(cm)
수련아	10	136.1(5.43)	30.4(5.06)	65.2(5.11)	74.0(3.07)
	11	142.7(5.03)	33.3(6.14)	68.0(5.53)	76.7(2.70)
비수련아	10	136.2(4.11)	30.2(2.77)	65.4(3.04)	74.6(2.37)
	11	142.3(5.00)	33.6(4.40)	68.0(3.26)	77.3(2.08)
전국평균	10	136.64	30.79	66.05	74.20
	11	141.44	33.86	68.24	76.33

표3. 체격 발달의 차이 비교 (10~11세)

구분	신장(cm)	체중(kg)	흉위(cm)	좌고(cm)
수련아	6.6	2.9	2.8	2.7
비수련아	6.1	3.4	2.6	2.7
전국평균	4.80	3.07	2.19	2.13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자기나라 어린이들의 심신이 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발달하기를 바라고 그 방향으로
 끊임 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그것은 장차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갈 제3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감당해야 할 책임은 바로
 어린이가 아닌 어른들에게
 있다.

IV. 결 론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자기나라 어린이들의 심신이 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발달하기를 바라고 그 방향으로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다. 그것은 장차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갈 제3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감당해야 할 책임은 바로 어린이가 아닌 어른들에게 있다.

건강한 일생을 유지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불의의 사고나 질병에 걸리지 않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당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이미 정설로 되어 있다. 특히 성장기에 처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운동」이란 그 종류와 실시방법에 따라서 특성이 각기 달라진다. 따라서 태권도 운동도 특유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의 심신 발달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 태권도 수련자가 비수련아에 비해서 안정성, 사려성, 사회성에 있어서는 優位를 나타내고 있으나 활동성, 충동성에 있어서는 劣位인 편

이다. 그리고 신체(체적)적 발달 면에 있어서는 수련아가 비수련아에 비해서 신장은 약간 우세하게 발달하나 체중 증가는 낮은 편이다. 따라서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의 심신 발달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끝으로 우리나라 태권도 인구의 65%를 어린이가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린이 태권도 지도자들은 어린이들이 보다 건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도 내용과 방법을 연구·개발해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한영호**

참고문헌

1. 宣相圭, 태권도 修練(教育)이 幼兒의 成長 및 性格에 미치는 影響, 1981, 世宗大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2. 이규형,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 정신교육에 미치는 효과, 1987,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安容奎, 태권도수련이 아동들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
4. 김석련, 어린이 태권도 교육이 I.Q와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1990, 한국 체육학회지 제29권 제2호.
5. 양희중 외, 태권도의 價値性(精神的 社會的)에 관한 調查 研究(國民學校 學生들을 中心으로), 1983, 「태권도」 제47호, 대한 태권도 협회
6. 김윤표, 태권도 수련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국민학생을 중심으로), 1989,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 崔仁範 외, 태권도 수련이 아동들의 신체발육에 미치는 영향, 1985, 경기대 대학원 논문집.
8. 宣炳基, 태권도 수련이 어린이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1985, 제1회 세계태권도학술발표회논문집, 대한 태권도협회.

어린이 태권도 프로그램의 구성원리와 지도방법



강신복

서울대 교수

● 강신복

서울대 체육교육과 졸업
미국 University of Oregon 체육대학 졸업
(박사)
교육부 체육교육과정 심의위원 역임
서울대 체육연구소장 역임
(현) 서울대 체육교육과 교수

태권도는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신체활동 및 정신수련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정신적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개인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달시켜 민주사회의 건강한 시민을 육성한다는 교육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전인적 인간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태권도의 목적은 교육의 일반 목적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태권도는 자라나는 어린 2세대에게 교육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에게 태권도를 지도할 때에는 단순히 기술이나 동작을 전수해주는 것보다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신체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까지도 다양하고 깊이있게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 태권도 프로그램을 능동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함으로써, 태권도 프로그램이 일관성을 갖고 고유의 목적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구성된 프로그램을 어린이 개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지도방법을 모색하려는 지도자의 자발적인 의지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1. 프로그램 구성의 기본원리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원리에는 자연과학에서와 같이 엄밀한 법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프로그램은 학습자와 사회의 필요를 조화시켜야 한다.

개인의 성장과 발달은 그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의하여 사회적 요구를 실현시킨다는 점에서 상호작용의 관계하에 있으므로, 결국 개인적인 필요도 보장하고 사회적인 요구에도 기여할 수 있는 포괄적인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 한다.

둘째, 프로그램 구성시 일관성 있는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존의 프로그램은 각급 도장간의 계열성이나 같은 도장내에서의 통합성 내지는 같은 대상에 있어서의 교육주기별 일관성 등이 등한시된 경우가 적지않다. 특히 프로그램은 그 자체가 계획성을 내포하는 것이므로 한 어린이에 대해 소정의 교육이 시작되면서 부터 끝날 때까지 일관성 있는 원칙에 따라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프로그램의 내용은 계속적인 발전성이 내재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교육활동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뿐만 아니라 발전시켜 나아가므로써, 프로그램 내용이 학습자의 성장·발달을 촉진시키고 그들이 보다 나은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태권도 프로그램이 고정적이고 정적인 사회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것이라면, 오늘날의 태권도 프로그램은 바람직한 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조해 가는 적극적인 과정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은 민주적으로 조직 구성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태권도 관련 교육전문가 뿐만 아니라, 지도자, 학부모, 나아가서는 학습자인 어린이나 일반 시민까지도 프로그램의 구성 작업에 직접·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즉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서는 중앙 교육기관의 일방적인 명령이나 지시, 감독 보다는 관심 있는 다수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목표의 설정

프로그램의 교육성과는 그 목표에 따라 달라지므로 목표 설정은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교육의 목표에 비추어 어린이 태권도 프로그램의 목표 또한 통합성, 보충성, 탐색성, 전문성의 네가지 기본원리를 근간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통합성의 측면에서 볼 때, 프로그램의 목표에는 책임있는 인간 형성 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인간형성에 강조점을 두는 일반 교육목표의 성격이 포함되어야 하며, 보충성의 측면에서 프로그램은 어린이의 개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각 개인의 교육적 필요에 따라 지도내용을 보충, 심화, 확대 시킬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탐색성의 측면에서 학습자의 개인적 취향을 발견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전문성의 측면에서 태권도의 다양한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기술, 태도 등이 전수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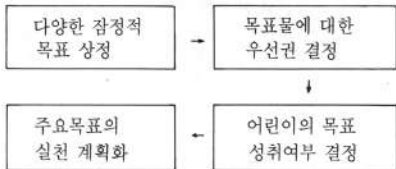
【목표설정의 기본원리】

이와 같은 목표 설정의 방법을 제시하는 모형 중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요구분석 모형에 의한 방법을 들 수 있다.

요구분석 모형에 의하면, 목표를 설정할 때에는 우선 사회와 국가의 지배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여



러가지 잠정적 목표들을 상정하고, 지도자나 부모, 어린이, 지역사회 주민 등이 각 대상별로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목표들이 무엇인가를 알아본다. 그리고 선택된 목표들을 어린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지와 또한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고, 최종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요구가 확인된 목표들을 중심으로 목표의 실천을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요구분석 모형에 따른 목표의 설정 방법】

한편, 체육의 목표 분류를 기준으로 어린이 태권도 프로그램의 목표를 구분하면, 심동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으로 나뉘어지는 일반목표와 이에 따른 세부목표로 대별할 수 있다.

【어린이 태권도 프로그램의 일반 목표와 세부목표(예시)】

일반목표	세부목표
<심동적 영역> · 체력을증진한다. · 운동기능을 터득한다.	-근력·근지구력을 증진한다. -심폐지구력을 증진한다. -민첩성·유연성을 증진한다. -막기와 지르기를 할 수 있다. -발차기를 할 수 있다. -거루기에서 받아차기를 할 수 있다.
<정의적 영역> · 사회성을 발달한다. · 정서를 함양한다. · 미적 감상력을 증진한다.	-리더십을 기른다. -준법정신을 기른다. -감투정신을 기른다. -회노애락의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 -동작의 미적 표현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인지적 영역> · 태권도의 여러 관련 지식을 이해한다.	-태권도의 특성, 역사, 가치 등을 이해할 수 있다 -태권도 경기의 규칙을 이해할 수 있다 -태권도 경기의 작전을 구상할 수 있다

3. 내용의 선정과 조직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과정은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과정이다.

프로그램 내용의 선정에는 크게 두 가지의 대립되는 견해가 있다. 하나는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프로그램 내용을 보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 내용 그자체가 목적적이고 가치있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즉, 전자와 같이 프로그램 내용을 바람직한 결

과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보는 입장을 도구주의적 관점이라 부르고, 후자와 같이 프로그램 내용이나 지도 및 학습활동 그 자체를 목적시하는 입장을 내재적 과정 중심주의라고 부른다.

도구주의적 관점에서는 과정보다 결과를 중요시한다. 즉, 지도나 수련활동은 그 자체가 내재적으로 가치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활동이 산출해내는 결과에 의해서 의미가 좌우된다. 반면에 내재적 과정 중심주의의 지지자들은 수련활동이란 학습자 개개인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나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점에서, 어린이 태권도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에는 효율적인 기능의 향상을 목표로 도구주의적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권도가 정신수양을 추구하는 무도라는 견지에서 프로그램 내용이나 학습활동 그 자체를 중시하는 내재적 과정 중심으로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하는 일에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계열성의 원리와 계속성의 원리, 그리고 통합성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계열성의 원리는 어떠한 활동이든지 그 내용은 논리적인 계열(sequence)로 범주화 또는 분류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폼새를 배울 때 먼저 서기와 주먹치르기를 익힌 후 막기와 차기, 찌르기 등의 기본 동작을 익히고 폼새의 내용과 방법을 배우는 것처럼 모든 프로그램 내용도 이러한 범주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경험은 여러번 반복되고 계속될 때 그 효과가 커진다는 것이 계속성의 원리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의 조직시에는 많은 연습시간을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진부한 내용이 오랫동안 반복, 계속될 경우 자칫 어린이들의 흥미를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내용 및 시간을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내용을 계열성과 계속성의 원리에 따라 조직할 때에는 학습자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유치원이나 국민학교

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계열성의 원리와 계속성의 원리, 그리고 통합성의 원리에 입각해야 한다.

시기의 어린이들은 개개인의 학습내용에 대한 준비도, 또는 소질, 성숙도, 흥미 수준 등이 각기 다르므로 프로그램 내용의 논리성보다는 어린이 개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성의 원리는 이미 선정된 내용을 조직할 때에는 소활동이나 프로그램 내용들이 서로 분리, 독립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넓은 범주에서 다른 활동이나 서로 통합된 성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겨루기를 지도할 경우, 겨루기 기술을 익히도록 부분적인 발기술과 방어 동작 등을 숙달시켜야 함은 물론 겨루기시 마음자세, 예절, 경기규칙, 겨루기 용어 등도 통합적으로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로그램 내용을 조직하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크게 주단위 조직과 계절단위 조직을 들 수 있다.

주단위 조직은 요일별로 소정의 학습내용을 조직·배정하고 이를 한 학기나 1년동안 매주 반복되는 방법으로,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주단위 조직은 프로그램 내용을 균형있게 개설하고 계획적으로 어린이들을 지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학습과정이 융통성 없이 획일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단점도 있다.

【주단위 조직에 의한 프로그램(예시)】

요일	초급	중급
월	서기,막기	기본 동작
화	치르기,발차기	발차기,태극 5-6장
수	발차기,태극 1장	스텝 겨루기,자유 겨루기
목	체력운동,자율 수련	체력운동,자율 수련
금	발차기,태극 2장	타겟 겨루기,태극 7-8장
토	맞추어 겨루기	자유 겨루기

어린이 태권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도하는 방법은 다각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나, 무엇보다도 능동적인 학습
및 지도상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탐구하고 노력하는 의지가
요구되며, 특히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어린 2세대들에게 체득시켜
준다는 소명의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계절단위 조직은 3-4개월의 계절별로 학습내용을 조직하는 방법으로서, 주단위 조직에 비해 프로그램 내용을 거시적 안목에서 체계화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지도계획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

【계절단위 조직에 의한 프로그램 예시】

	초급	중급
3월	· 서기 · 막기, 저르기	· 기본동작 · 스텝 겨루기
4월	· 발차기 · 기본공격과 방어	· 태극 5-8장
5월	· 태극 1-2장 · 맞추어 겨루기	· 타겟 겨루기 · 자유 겨루기

4. 효율적인 지도방법의 선정

지도방법은 동작이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느냐, 또는 부분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전습법과 분습법으로 나눌 수 있고, 일정한 수련기간을 휴식 없이 연속적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집중법과 분산법으로 나눌 수 있다.

· 전습법 : 프로그램 내용을 전체적으로 하나로 묶어 처음부터 한꺼번에 몇 번이고 반복 실시토록 하는 지도 방법으로서, 수련시간이 길고 수련이 진행됨에 따라 효과적이다.

· 분습법 : 프로그램 내용을 몇 부분으로 세분화하여 각 부분을 일정 수준까지 숙달시킨 다음 전체 내용을 통합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지도방법이다. 예를 들면 페인트가 있는 공격기술을 지도할 경우, 먼저 페인트와 중심이동을 지도하고, 다음에 공격기술을 지도한 후, 최종적으로 페인트와 공격기술을 종합하여 지도하는 방법이다.

· 집중법 : 수련시간에 휴식을 두지 않고 연속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으로서, 일정 시간동안 주위를 집중하게 되므로 연속효과를 높일 수 있으나, 특히 어린이의 경우 쉽게 흥미를 잃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 분산법 : 수련시간 중에 휴식을 취하도록 하면서 지도하는 방법으로서, 피로를 회복하고 수시로 동작교정이나 보완설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은 지도방법은 프로그램 내용의 성격이나 어린이의 특성, 시간, 장소 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지도자는 항상 매 상황에 적합한 지도 방법을 선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상과 같이 어린이 태권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도하는 방법은 다각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나, 무엇보다도 능동적인 학습 및 지도상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꾸준히 탐구하고 노력하는 의지가 요구되며, 특히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어린 2세대에게 체득시켜 준다는 소명의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1**

모두 함께 만드는 태권도 큰잔치

'92 태권도한마당

대한태권도협회는 오는 12월 전국의 동호인이 모두 모여 각자의 힘과 기를 겨루는 태권도의 큰 잔치 『'92태권도한마당』을 개최키로 하고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이 대회 특징은, 엘리트 선수만을 대상으로 하는 겨루기 중심의 일반대회와 달리 태권도를 즐기는 동호인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도록 품새와 격파를 주로한 경연대회라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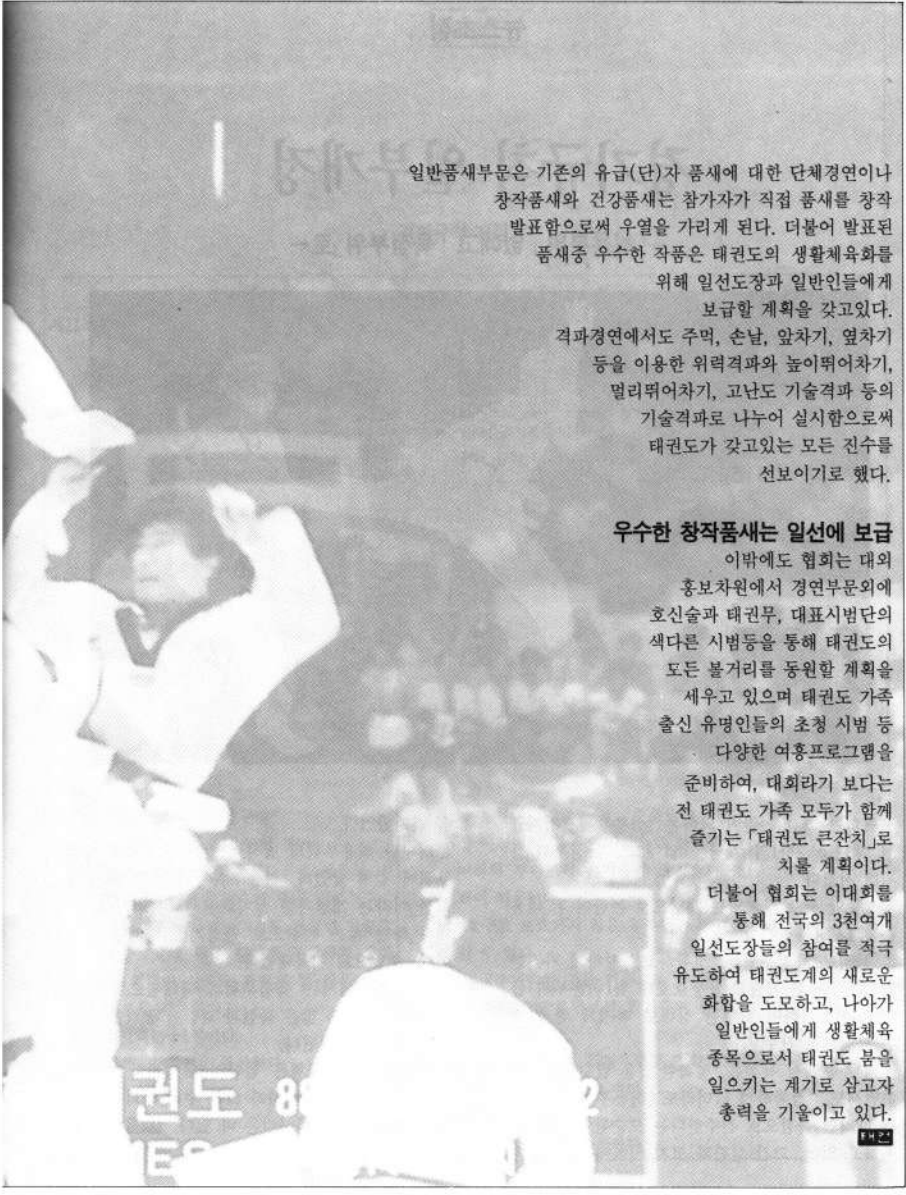
협회는 연간 10여차례나 개최되는 모든 대회에서 겨루기부분만 실시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태권도의 전체적인 개념을 왜곡시킨다는 지적과, 국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고조에 따라 태권도의 생활체육적 가치를 홍보해야 한다는 일선의 요구에 부응하여 이 대회를 창설키로 한 것.

겨루기 탈피 품새, 격파경연대회

협회는 가능한 많은 동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년부(초,중), 청년부(고, 대, 35세미만 일반), 장년부(35세이상), 여성부(교교이상)등 4개부로 나누어 품새와 격파경연을 실시키로 하고 품새경연은 일반, 창작 건강품새 부문으로 구분하고, 격파도 위력을 중심으로 하는 부문과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부문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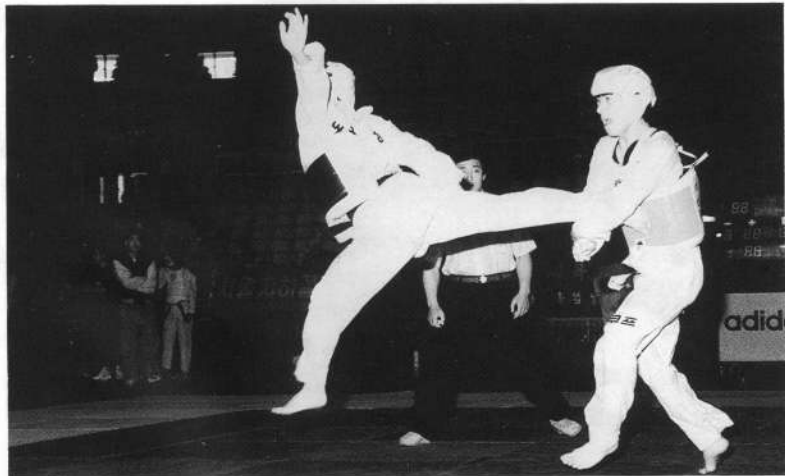
일반품새부문은 기존의 유급(단)자 품새에 대한 단체경연이나 창작품새와 건강품새는 참가자가 직접 품새를 창작 발표함으로써 우열을 가리게 된다. 더불어 발표된 품새중 우수한 작품은 태권도의 생활체육화를 위해 일선도장과 일반인들에게 보급할 계획을 갖고있다. 격파경연에서도 주먹, 손날, 앞차기, 옆차기 등을 이용한 위력격파와 높이뛰어차기, 멀리뛰어차기, 고난도 기술격파 등의 기술격파로 나누어 실시함으로써 태권도가 갖고있는 모든 진수를 선보이기로 했다.

우수한 창작품새는 일선에 보급

이밖에도 협회는 대외 홍보차원에서 경연부문외에 호신술과 태권무, 대표시범단의 색다른 시범등을 통해 태권도의 모든 볼거리를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태권도 가족 출신 유명인들의 초청 시범 등 다양한 여흥프로그램을 준비하여, 대회라기 보다는 전 태권도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기는 「태권도 큰잔치」로 치를 계획이다. 더불어 협회는 이대회를 통해 전국의 3천여개 일선도장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태권도계의 새로운 화합을 도모하고, 나아가 일반인들에게 생활체육 종목으로서 태권도 붐을 일으키는 계기로 삼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규칙 일부개정

—「허용부위」 없애고 「특점부위」로—



협회는 그간 논란이 되어온 「허용부위」(경기규칙 제11조 2항)의 개념을 없애고 「특점부위」를 확대 시켰다.

그동안 서로 상치되는 개념으로 논란이 된 내용은 제12조(특점)2항.

「특점은 특점부위를 '정확하고,' 강하게 가격한 것, 단 정당한 기술로 몸통보호대 위(허용부위)를 '강하게' 공격하여 위험한 상태로 빠지게 한 경우는 특점으로 간주」

이 부분에서 특점은 '정확한' 것을 필수요건으로 하면서도, '정확하지 않더라도'(허용부위) 강하게만 때리면 특점으로 간주한다는 모순된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그간 심판과 코치 사이에 많은 혼돈

을 가져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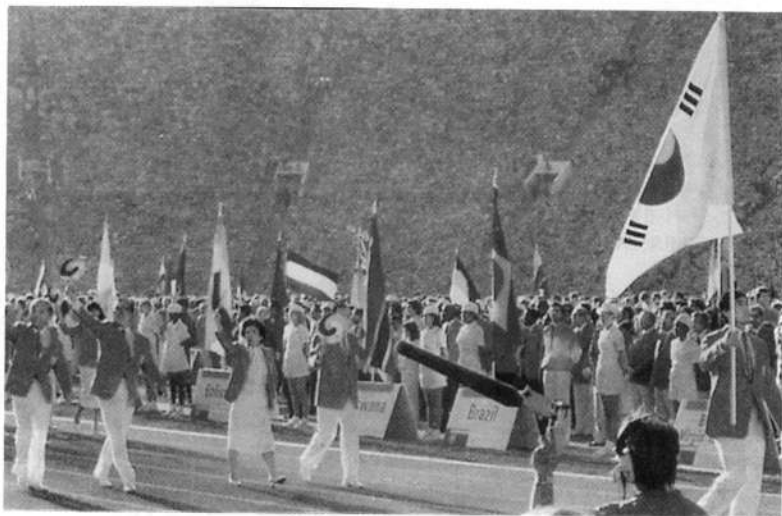
더구나 허용부위의 명시로 인해 발공격이 특점부위에 걸쳐 맞았다, 허용부위에 걸쳤다 등, 「정확한」이라는 개념과는 상치되면서 「특점이다, 아니다」라는 많은 논란으로 판정기준 자체를 흔들어 온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이번 개정에서는 특점부위가 확대됨으로써 판정시비의 불식과 많은 특점과 과감한 공격을 유도하게 되리라 기대된다.

협회는 「경기규칙은 간단하고 명쾌할수록 좋다」는 일반적 인식에 따라 그간 수 차례의 경기규칙을 현실화, 간소화시켜온 바 있다. **스포츠**

카운트 다운 돌입

'92 바르셀로나 올림픽 태권도 시범경기



올림픽사상 최대규모 대회

세계스포츠인의 대축제인 올림픽 대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이번 바르셀로나 올림픽은 1백 70여개국에서 1만 6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 올림픽 사상 최대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16일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되는 제25회 바르셀로나올림픽은 25개 정식종목과 3개 시범종목에 총 257개의 금메달을 놓고 각국의 경연이 펼쳐진다.

-정식종목: 양궁, 육상, 배드민턴, 야구, 농구, 복싱, 카누, 사이클, 승마, 펜싱, 축구, 체조, 핸드볼, 하키, 유도, 근대오종, 조정, 사격, 수영, 탁구, 테니스, 배구, 역도, 레슬링, 요트

- 시범종목: 태권도, 로울러하키, 펠로타

태권도 28개국에서 128명의 선수 출전

88서울올림픽에 이어 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참가하게 된 태권도는 8월3일부터 5일까지 바르셀로나의 팔라우 블라우그라나(Palau Blaugrana)

체육관에서 개최된다.

남자 26개국 64명, 여자 25개국 64명 등 총 28개국에서 128명의 선수가 참가하게 될 이번대회에 한국은 남자 4체급, 여자 4체급 등 총 8명의 선수가 출전하게 된다.

-- 참가국: 한국, 중화대북, 필리핀, 인도네시아, 호주, 네팔, 미국, 멕시코, 캐나다, 칠레, 베네수엘라, 푸에르토리코, 스페인, 터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독립국가연합(구소련), 덴마크, 유고슬라비아, 이집트(이상 남, 녀), 요르단, 이란, 나이지리아(남자), 뉴질랜드, 영국(여자)

8명의 국가대표 태릉선수촌서 우승의 고지를 향한 마무리 강화훈련

바르셀로나 올림픽에 참가하게될 국가대표 선수단은 지난 3월부터 태릉선수촌에 입촌하여 계속해서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지키기 위하여 마무리 전력 점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계 4위의 빛나는 성과를 올린 서울 올림픽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한국스포츠의 요람 태릉선수촌은 각종목 대표들의 훈련열기로 뜨겁기만 하다.

태권도 대표선수단은 남자와 여자가 출전 4체급중 각각 금메달 3개씩을 획득한다는 목표를 갖고 마무리 체력훈련과 기량쌓기에 여념이 없다.

특히 최종 평가전을 통해 선발된 남녀 각 4체급 우승자들은 3월 16일부터 120일간의 강화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체급별 2위자를 훈련 파트너로 삼아 강도높은 훈련을 계속해 왔다. **▶▶▶**

경기일정

일자	체급	경기방식	한국팀 경기일정
8.3	남.녀 밴텀, 웰터, 헤비	토너먼트, 매일 체급별 예선부터 결승, 시상식까지 진행	남자-웰터, 헤비 여자-밴텀
4	남.녀 플라이, 라이트, 미들		남자-플라이 여자-라이트, 미들
5	남.녀 핀, 페더		남자-페더 여자-핀

제 25 회 바르셀로나 올림픽대회 파견선수단명단

구분	세부종목	성명	소속
경기임원	남자부	주신규	
경기임원	여자부	임신자	
남자선수	플라이급	서성교	한채대
	페더급	김병철	상무
	웰터급	하태경	춘천군청
	헤비급	김재경	상무
여자선수	핀급	모선영	한채대
	밴텀급	황은숙	상명여대
	라이트급	정은옥	일반
	미들급	이선희	체과대

태권도의 남북교류를 기대하며

하성봉

한겨레신문 체육부 기자

지금으로부터 약 1년전인 91년 7월 어느날 두툽한 편지 한통이 책상위에 던져져 있었다. 국제태권도연맹(ITF)발신으로 된 그 서신은 유럽의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온 것이었으며 국제우편이란 사실하나만으로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내용인즉 태권도의 올림픽채택을 위해선 국제태권도 연맹과 세계태권도 연맹이 통합해야 하며 그대야만 올림픽 정식종목에 태권도가 채택될 수 있다는 논지였다. 이와함께 이 서신은 세계태권도연맹이 줄곧 통합에 반대하고 있다고 못박고 이에 따라 올림픽 정식종목 불채택에 따른 전직인 책임을 세계태권도연맹이 져야한다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논리를 내걸고 있었다. 더구나 놀라운 사실은 태권도의 서울올림픽 정식종목 채택을 위해 85년 오지리에서 회의를 가졌으며 세계태권도연맹의 무성으로 결론없이 흐지부지되고 말았다는 구체적인 실례까지 거론하고 있었다.

오는 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정식종목채택이 이미 물 건너간 지금 정식종목채택 운운 자체가 실없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당시만 해도 태권도의 올림픽정식종목채택은 국내체육계의 굵직굵직한 관심사 중의 하나였으며 채택만됐다하면 체육연톱을 장식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안이었다.

시종 격양된 태도로 다소 자제력을 잃었다할 정도로 그 서신은 세계태권도연맹과 특정인을 몰아치고 있었다. 고조된 감정으로 인신비방에 가까운 그 서신말미의 수신단에는 체육부장관 대한태권도협회장과 대통령 및 현 여야 차기대통령후보자에게도 복사본이 전달될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같은 상쾌하지 못한 지나간 이야기를 굳이 1년지나던 현재 또다시 그것을 끄집어 내는 것은 오는 7월 중순 개막되는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앞두고 태권도계에 한가지 알량한 제언을 하기위해서다.

알려진대로 태권도는 서울올림픽에 이어 이번 올림픽에 시범종목으로 참가한다. 반가운 일이다. 물론 이 성과는 세계태권도연맹·대한태권도 협회 등 국내태권도 단체와 무엇보다 그들에서 묵묵히 일해온 국내의 일선지도자들의 공로로 돌려져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비록 정식종목이 아니라 해도 가장 큰 세계 스포츠무대에서 태권도 경기가 열린다는 것은 한국인의 자긍심을 북돋우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올림픽은 32년만에 올림픽에 복귀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포함, 180개국이란 사상최대규모가 참여하는 대회로 세계의 시선이 집중된다. 바로 이곳에서 「태권도의 통합」을 선언하는 것은 어떨까.

이는 화합과 평화라는 올림픽정신과도 합치되는 것으로 무엇보다 태권도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국제태권도연맹은 북한을 회원국으로 두고 있으며 경기규칙의 차이 등 넘어야 할 「벽」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면 두단체는 한뿌리에서 파생된 두가지일 뿐이며 그간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두단체의 통합에 방해해온 것은 지상을 통해 전해진 바와 같다.

그러나 체육계의 현 상황은 과거와는 판이하게 달라져 있다. 지난해 이미 남과 북이 축구 탁구등

경기서 이미 단일팀을 구성한 뚜렷한 전례가 있다. 더구나 두단체의 분리는 이념적인 차이에서 기인한 것도 아니어서 경우에 따라 통합은 보다 손쉬운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변화는 철저한 자기부정을 동반한다고 했던가. 한단계 높은 곳을 지향하는 국내 태권도계도 이같은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과연 통합의 장애물은 무엇인가?

이해의 근거를 위해 지난 85년 6월 세계태권도연맹과 국제태권도연맹 대표 사이에 오고간 대화를 발췌 게재하면 다음과 같다.

“통합문제는 절실하니 대등한 입장에서 논의하자”(ITF박정태 당시 사무총장) “통합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여러분이 북한에 태권도 교육을 하여 북한군사력을 증강시키는 것은 이적행위다”(WTF대표) “우리가 북한에 갔다왔다고 해서 빨갱이 취급을 하며 조건부 대차하는 것은 못마땅하다”(ITF) “여러분과 ITF가 북한과 손을 떼겠다는 약속을 서명협정에 삼입시키자”(WTF) “그것은 어렵다. 북한은 단지 ITF회원국이기에 때문에 그들의 조언을 받는 것이다.”(ITF) “북한쪽은 ITF를 계속시켜 최후회 총재로 하여금 지령에 의해 ITF를 운영케하고 있다”(WTF)

“WTF와 ITF통합이란 말이 안되며 여러분이 언제든 들어올 수 있게 문을 개방해 놓고 있다”(WTF) “ITF회원국과 수련자 약 1백만명이 IOC에 반대를 제기케 되면 서울올림픽의 시범경기후 WTF와 태권도는 IOC에서 승인이 취소되게 된다. 대신 가라데가 올림픽종목이 될 것이다”(ITF)

남북관계에 ‘냉전’만이 존재한 당시 WTF는 ITF쪽에 북한과의 ‘절교’를 요구했고 ITF는 북한이 단지 일개 회원국임을 주장했다. 당시 양측 대표들은 네차례 접촉했으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결렬됐다.

아직껏 태권도의 올림픽정식종목채택은 유효한 사항으로 남아있다. 그간 IOC는 태권도의 불채택의 주된 이유중 하나로 두단체의 통합을 요구했으며 정치적으로 핑계삼아 이사실을 악용한 의혹도 없지 않다. 물론 태권도의 정식종목채택이 궁극적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가 두터운 벽을 깨고 두단체의 통합에 이어 남북간의 「통일」을 여는 장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더욱 커다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

인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다만 두단체의 분리와 갈등이 세계 스포츠 무대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치고 있는데 동의한다면 하루빨리 이같은 적대감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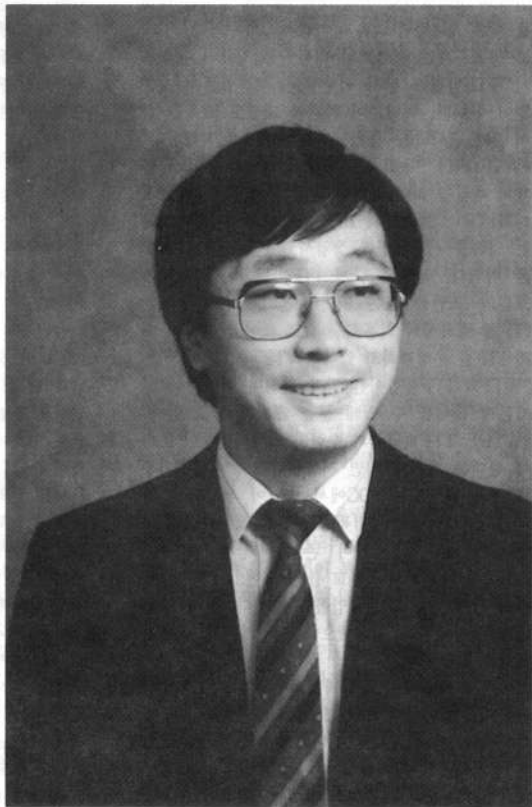
특히 고유의 무도인 태권도가 두터운 벽을 깨고 두단체의 통합에 이어 남북간의 「통일」을 여는 장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더욱 커다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닐 수도 있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물론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세계 태권도연맹은 IOC가 인정하는 공식기구라는 「공식성」여부를 문제 삼을 수도 있겠으나 때로는 대중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을 겨냥하는 너른 포용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물론 ‘흡수통합’이 아닌 상대방의 자존심도 살리는 요책으로서 말이다.

양단체의 전격적인 통합이 현단계에서 무리가 따른다면 중간단계를 대안으로 상정할 수도 있다. 남북 태권도 교류가 그것이나 지난해 국제태권도연맹은 활발한 남북교류의 분위기를 타고 대한 태권도 협회에 태권도 남북교류를 제의한바 있으며 협회는 남북체육회담이라는 공식창구를 통해 제반문제를 논의하는 긍정적인 답신을 보낸바 있다. 따라서 남북체육회담의 난조로 진척되지 못한 태권도 교류가 바르셀로나에서 대한태권도협회와 국제태권도연맹회원국인 북한의 조선태권도연맹간에 공식의제로 채택되지 말란 법도 없다.

더구나 국제태권도연맹은 오는 92년 9월 11~15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8차세계대회에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의해 놓고 있는 터이다. 지난 4월에는 오는 94년 히로시마 아시아경기대회에 태권도가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남보’가 있었다. 북한이 참여하는 바르셀로나에서 태권도의 남북 교류합의라는 두번째 희소식이 터져나올 것을 기대해 본다.

주위와 조화된, 그러면서도 자기만의 목소리를 갖는 작품을 만드는 건축가

인우 건축 설계 사무소
이광배 대표(5단)



• 이광배

1951년생(42세)

경기중고를 거쳐 서울 공대 및
동대학원 건축학과 졸업(공학석사)

미국 텍사스 주립 대학 졸업
(건축학 석사)

한국 및 미국 건축사 자격증 획득
현재 종합 건축사 사무소 인우 대표

경희대 건축학과 출강
건축가협회 설계분과 상임위원

태권도의 수련처럼 집중하고 인내해야 좋은 작품 나와

강남의 테헤란로에 11,000평 규모의 현정빌딩, 인천 주안에 세워진 12,000평 규모의 신성소펄타워, 대전의 12,000평 규모의 보건전문대학, 퇴계로 명동 입구의 우풍 빌딩 등 길을 가다 고개를 들어보면 십사리 눈에 뜨이는 굵직굵직한 대형 빌딩들이 태권도인의 손으로 설계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강남의 사당동 지하철역앞 서울지하철본부 앞에 마련된 사옥 「종합건축사사무소 인우」의 대표 이광배씨가 위에 열거한 여러 빌딩들을 설계한 태권도인(5단).

미국유학과 그곳에서 건축사로서의 활동 등으로 그가 한국에 귀국한 것은 1987년도. 지금까지 20여편의 작품을 내놓았는데 매년 평균 4개의 작품을 선보인 셈이다.

“많은 프로젝트가 들어오지만 제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면 거절하거나 그일에 맞는 다른 건축가를 소개합니다. 그러나 제가 해볼만한 작품이다 싶으면 그 작품을 맡는 순간부터 준공까지 건축가로서 혼신을 다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다작을 기대하기 어렵지만 그가 맡은 건물은 하나의 작품으로 승화되어 나온다.

그는 “건축 설계는 창조하는



20여년전 자연을 벗하여 태권도 시범을 보이던 모습

작업”이라고 강조한다.

단지 웅장하다거나 아름답다고 해서 훌륭한 것은 아니며 경제성이 고려되고 기능이 잘 해결되고 시대성이 잘 표현된 작품이어야 하며 사용자에게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특히 자기 다른 주위 환경, 땅 모양새가 다르고 건물의 기능도 다른 가운데 주위와 조화되면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갖는 작품이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는 또한 태권도의 수련처럼 집중하고 인내해야만 좋은 작품이 나온다고 강조한다.

중학교 2학년 때 태권도 시작, 학창시절 학교와 도장밖에 몰라

이광배씨가 태권도 수련을 시작한 것은 경기중학교 2학년때 부터였다.

5남 2녀의 4남으로 태어난 그

는 1인 1기씩을 강조하신 부친의 뜻에 따라 중1때 유도를 시작했다고 한다.

학교에서 가까운 시청앞의 유도대학에서 매일 수업을 마친후 유도를 수련했지만 중학교 1학년생으로서 너무 힘겨운 운동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함께 수련하는 사람들이 다들 성인들이었기에 그는 매일 맞으면서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는 역할밖에는 할 수 없었다. 아무리 해도 그들을 이겨낼수 없으리라는 것이 그를 더욱 힘들게 하였다.

그런 중에 그가 사는 불광동에 태권도 도장인 무덕관(본관)이 문을 연다는 광고가 동네 곳곳에 붙었다.

그래서 그는 불광도장 1기가 되어 태권도를 수련하기 시작해 이곳에서 10여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태권도를 수련하게 되었다.

그가 도장에 나오지 않은 날이 있다면 몹시 아파 학교를 결석하던날 밖에는 없을 정도로 그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기 까지를 학교와 도장밖에 모르고 살았다.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태권도 수련하며 강인한 정신과 인내력 길러

“당시 도장은 폐쇄된 공장의 창고를 개조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땅바닥에 창문도 없는 그야말로 비만 새지 않을 정도의 도장에서 태권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연탄난로 하나를 피워 놓고 땅바닥에서 맨발로 태권도 수련을 했습니다. 수련생들이 너무 추우니까 신발을 신자고 하여 신을 신고 겨루기를 하고나면 온몸이 피멍이 들곤 했습니다. 샌드백은 미군 군용백에다 톱밥을 넣어 만든 것인데 겨울에는 물렁이처럼 딱딱하게 얼어 붙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런 열악한 조건이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수련생이 많았습니다.

그의 회고 속에서 현대 태권도의 초창기의 모습, 더 나아가서는 당시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현실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는 왜 그토록 열심히 태권도를 수련했을까.

“부친이 1인 1기를 강조, 5형



국민학교운동장에서 격파시험 등을 통해 태권도의 진수를 보이는 행사를 갖기도...

제 모두가 한가지씩의 운동을 나름대로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유도를 포기하고 제가 선택한 태권도를 배웠기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는 생각과 함께 유단자로 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열망이 컸습니다. 또한 도장에 입관했을 때만 하더라도 나이 많은 선배들이 공포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후배들이 생기고 유단자가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때부터는 성인반 지도를 맡게 되면서 태권도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이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권도를 배우고 지도하면서 힘든 역경을 이기면서 강인한 정신과 인내하는 정신력을 기렀다. 또한 한가지를 끝까지 몰고 늘어지는 집중력과 무

엇이든 열심히 전심전력으로 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값진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체력을 키웠던 것이다. 이때의 정신력과 체력이 바탕이 되어 지금까지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 그는 믿고 있다.

서울공대 재학시절 기숙사에 태권도부 만들어 지도

그는 서울공대에 진학한 후 1학년 2학기때 군대에 갔다는 이후 복학과 동시에 대학원을 졸업할때까지 약 6년간 공대 기숙사에서 보냈는데 그는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권도부를 만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태권도를 지도했다.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었던 시절이라 늘 바쁜 날들 속에서 저녁 수련은 기숙사에 고요한

어둠이 감돌고 있는 밤10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저녁에 수련하지 못한 학생이나 새벽운동을 원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새벽 6시부터 태권도를 지도했다. 태권도를 아끼고 사랑한 만큼 많은 학생들에게 태권도를 보급하는데에도 열성을 다했던 것이다.

“마지막 수단으로 태권도 복을 입겠다”는 각오로 미국 유학길 올라

1981년 미국 유학을 떠나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소중히 태권도 복을 챙겼다. 태권도 5단에 사범 자격증까지 있는 그였지만 “마지막 수단으로 태권도복을 입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갔다.

유학생활동 안해본것이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를 해가며 어렵게 공부해 건축학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건축사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태권도는 나의 정신적인 모체”이기 때문에 학비나 생활비를 목적으로 태권도복을 입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졌다는 그는 결국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태권도의 순수를 지킬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

“당시 미국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한국인은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교수나 의사, 종교가, 정치인 보다도 태권도 사범만큼 존경도 받고 돈도 버는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유학가기 몇달전에 태권도를 배우는



불광도장1기생들(뒤 우측끝이 이광배씨)

학생들도 있었고 미국에 와서 태권도라며 가르치는 돌팔이식 태권도 사범들도 적지 않아나 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쉽게 돈을 벌면서 유학생활동을 보낼 수 있었지만 태권도 지도로 돈을 벌지 않겠다는 그만의 고집스러움. 그것이 바로 태권도에 대한 그의 사랑방식이 아니었을까 싶다.

그렇다고 그가 태권도복을 입지 않은 것은 아니다.

6년간의 유학생활동중 그의 표현대로 소극적이긴 하지만 아르바이트를 할 때나 학위를 받고 건축설계사무실에 취직을 해서 일할때 그곳의 동료나 노무자들을 상대로 늘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하며 태권도 도장의 요청에 따라 시범을 보임으로써 태권도를 알리는데 노력했다.

태권도의 일을 간직한 건

축가로서의 삶을 보일 것

그는 '87년도에 영주권까지 반납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고국을 위해서 할일이 있을 것 같다는 신념과 아이들이 국적없는 아이로 키워지는 안되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지난 5년간은 새롭게 시작하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안정되게 뿌리 내리는데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신사옥의 입주와 함께 건축가로서의 출발이라는 생각으로 좋은 작품을 만들어 태권도의 일을 간직한 건축가로서의 훌륭한 모습으로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는 각오를 보여주는데 이광배씨.

그는 제도판위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며 좋은 작품을 기대하는 태권도인이 있다면 더욱 정성을 다해 설계에 임할 것이라는 말도 잊지 않았다.

태권도 선수출신 시의회의장이 되어 지역발전을 위해 뛰다

김제시의회 안영빈 의장



안 영빈

- 1950년 전북 김제출생(42세)
- 김제고, 명지대 경영학과 졸업
- 김제 중앙중학교 동창회장
- 전북 태권도협회 이사
- 김제시 의회 의장

바쁜 일과속에서도 태권도 발전에 앞장

태권도 경기인 출신으로 전라북도 김제시 의회 의장인 안영빈씨는 요즘 지역 주민의 대변자로서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지난해 기초의회가 개원된 이래 7명의 의원중 최연소 당선, 최다 득표, 최고 득표율을 차지하면서 자타가 공인하는 김제시 의회 초대 의장이 된 것이다.

의장직을 맡아 의회의 살림을 맡으라 행정의 독주를 견제하라는 지역에 산재한 민원현장 시찰과 세미나 참석 등 하루 하루의 일정이 꽉 차있다. 바쁜 와중에도 본인이 직접 태권도를 수련하고 또 후배들을 지도 했던 김제 무덕체육관 출신 유단자들의 모임을 만들어 지역 사회 발전에 앞장서고 있으며 장학사업을 추진, 후배들의 뒷바라지에 여념이 없다.

안영빈의원은 현재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 이사직과 김제시 지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커다란 명예가 있는것도 아니요 수입이 있는것도 아닌 조그마한 자리를 바쁜 와중에도 지키고 있는 것은 태권도인 으로서 태권도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이다.

전국체전서 두차례 우승



안 영빈의원이 태권도를 배운 것은 중학생 때부터이다. 초단을 따고나서는 훌륭한 선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더욱 열심히 수련하여 김제고, 명지대 재학시절 전국체전에서 2번이나 우승을 차지하는 등 화려한 입상경력을 갖고 있고 전라북도 체육상도 수상한바있다.

가족으로는 금성 주유소를 경영하는 조 영숙씨와 1남 2녀가 있는데 큰딸 미아(1단) 아들 강열(3단) 막내 근아(1단)가 모두 태권도 유단자이다. 특히 막내 딸인 근아양은 태권도 특기생으로 김제 여자고등학교 3년 장학생으로 입학하여 1학년에 재학중이다. 아버지의 제자이며 현재 김제 무덕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서인오 사범의 지도를 받고 있는 근아양은 안의원의

적극적인 선수생활 지원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진정한 지역의 대표가 되도록 노력할 것

시의원 당선에서 시의회 의장으로까지 이제 기초의회가 시작된지 1주년이 지났다.

안의원은 『열심히 일하라고 뽑아주신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김제시 발전과 지역주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밝힌다. 내가 성장한 이곳 김제에서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연구하며 실천해서 진정한 지역의 대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는 각오를 보여 주었다. **F42**

(전북 이윤영 편집위원)

대한태권도협회

이사회 개최

대한태권도협회 이사회는 5월 28일 오후 7시 올림픽회관 유스호스텔 2층 스포츠맨스 클럽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총 24명의 이사중 13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아시아안 게임 정식종목 채택에 관한 경과보고, 제1회 협회장기 품새 및 시범경연대회 개최 계획 수립 및 이에 따른 경기 규칙(품새 및 시범 편) 제정에 관한 안건이 토의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최세창회장을 비롯해 홍종수 김순배 부회장, 강원식 전무이사, 임정태 이유생 노희탁 이금홍 황경노 김현운 정세화 이석훈 김인석 이사, 송봉섭 조영기 감사가 참석했다.

경기 용품 공인

대한태권도협회는 경기용품의 품질개선과 규격통일, 질적향상을 위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용구(품)에 대하여 공인품을 지정 하였다.

공인품목은 전광판, 매트, 호구, 머리보호구, 살보대, 팔다리 보호대 등으로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공인료는 전광판과 매트가 각각 100만원, 그밖의 것은 각 50만원씩이다.

태권도 경기용품 공인은 대한체육회 경기용품 공인 및 검정지침에 의거하여 태권도 경기용품 공인 규격화의 기준을 정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바 있으며 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 5월 6일부터 20일까지 태권도 용품 제조업자로부터 공인 신청을 받은바 있는데, 협회는 이를 검토, 오는 9월 1일부터 공인품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된다.

베트남에 태권도 선수단 파견

한국과 베트남간의 체육교류협정에 의거하여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교류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제3회 호치민시 격투기 연맹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베트남 태권도선수권대회에 선수단을 파견한다.

호치민시는 태권도와 유도종목은 경기를 치루고 합기도, 가라데, 베트남 전통무술인 보비남은 시범대회를 갖기로 했다.

베트남 올림픽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호치민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태권도 토너먼트대회(92.7.15-17)에 태권도선수단을 초청한다는 초청장을 대한올림픽위원회에 보내온바 있다.

미수교국인 베트남의 태권도 보급 활성화 및 체육교류와 외교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되는 선수단 파견은 호치민시에서의 경기출전과 함께 하노이에서 태권도 시범을 보이게 된다.

베트남 국제경기 및 시범대회

에는 대한태권도협회 강원식 전무이사를 단장으로 이규석 아시아 태권도연맹 사무총장 겸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교수가 감독으로 파견되며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시범단 10명 등 총 14명의 선수단이 파견된다.

▲베트남 파견 선수단 명단

단장: 강원식(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

감독: 이규석(아시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대한체육과학대학 교수)

코치: 남승현(대한체육과학대학 직원)

국제심판: 송우길(대한태권도협회 상임심판원)

선수

(남자부)

핀급: 이대호

플라이급: 유성호

밴텀급: 이지철

페더급: 안홍엽

라이트급: 오영화

(여자부)

핀급: 이순영(고양종교)

플라이급: 김민정

밴텀급: 김은숙

페더급: 권희실

라이트급: 김경숙

부산직할시협회

'92 태권도관장체육대회

부산직할시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 5월 31일 사직축구보조장



제주달리기 대회를 하고 있는 관중들

기장에서 5월의 맑은 날씨 속에서 350여 체육관객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단결을 위한 '92 부산 태권도관장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최용수 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오늘 이처럼 안정과 우정을 나누며 서로 상부상조하는 즐거움을 갖게 된것을 전태권도 가족과 함께 기쁘게 생각하며 이 행사가 뜻깊은 자리가 되도록 마음껏 뛰고 달릴수 있는 하루가 되어주길 당부하였다.

이번 대회는 각구 지회별로 지회장과 20대 30대 40대로 구분되어 100m달리기 400m, 800m 계주로 진행되었다. 특히 800m 계주에는 각 지회장이 출전, 각구의 명예를 앞다투어 달려 각구 응원석에서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축구경기가 진행 될때는 각지회 응원석에서 열띤 응원이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마지막 축구 결승전에서 북구지회와 금정구 지회가 열띤 공방전을 벌여 전반에서 1대 1 동점을 이루는 막상막하의

열전을 벌였는데 후반에서 북구 지회가 1점을 추가 금정구지회를 2대 1로 이겨 종합우승을 차지하여 우승기와 부상을 수상하였으며 해운대구 준우승, 금정구지회가 3위를 차지하였다.

승품·단 심사대회

부산태권도협회는 '92년도 제 2회 승품·단 심사대회를 4월 26일 구덕체육관에서 2,700여명의 응심자가 참가하여 성대히 거행되었다.

심사에 앞서 '92년도 임원 위촉장 수여식과 '92 제1회 심사우수도장 표창수여식이 있었다.

종별태권도대회 개최

부산종별태권도대회가 지난 3월 26일과 27일 양일간에 걸쳐 구덕실내체육관에서 350여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경기에 앞서 최용수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대회는

태권도 소식

부산태권도 인구 저변확대는 물론 우수선수를 발굴하여 향토체육발전에 역군이 될 선수육성에 그 뜻이 있다고 말하고 지혜와 용기, 성실한 자세로 평소에 갈고 닦은 기술을 충분히 발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경기에서 부산체고의 차경범은 지영운(덕원공고)에게 2:0판정승을 거두고 16강전에 올라 박수태(동의공고)를 맞아 뒤차기와 되받아치기를 각각 1, 3회전에 성공시켜 2:0으로 이겼으며 2일째인 결승전에서 김정

수(개금고)는 절묘한 되받아차기로 동작이 큰 박건영(동천고)을 공격 4:1 판정승으로 고등부 페데급 우승을 차지하였다.

'02 경기규칙강습회

부산직할시태권도협회에서는 지난 3월 19일과 20일 구덕실내체육관에서 일선 체육관장들과 각팀의 감독 코치들의 자질 향상과 책임있는 교육을 위한 경기규칙 강습회가 대한태권도협회의 강사진에 의해 실시되었

한국체육대학 이승국교수, 멕시코 과달라하라 주립대학서 명예 박사학위 취득

한국체육대학의 이승국교수가 멕시코 주립과달라하라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승국교수는 지난 5월 22일 친선경기 및 세미나를 위해 태권도선수단과 함께 멕시코 방문중 과달라하라대학총장으로부터 학위를 받았다.

한국체육대학과 과달라하라대학은 자매결연을 맺고 양교간의 문화 및 태권도교류를 증진하고 태권도의 기술보급을 위하여 태권도 유학생을 교류하기로 하였다.

과달라하라 주립대학은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유서깊은 대학으로 20만명에 달하는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멕시코에서는 두번째로 큰 대학이다.



▲이승국교수 약력

- 평북 신의주 출생
- 명지대 행정학과 졸업, 연세대 행정대학원 및 경희대 교육대학원 졸업.
- 제6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코치(1983)
- 제10회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코치(1986)
- 제24회 서울올림픽 태권도경기 국가대표코치(1988)
- 현재 한국체육대학 태권도부 지도교수, 명지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

다. 이날 200여명의 수강생들은 일부 개정된 경기 규칙과 절서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지켜야 할 자세에 대하여 진지한 강의를 받았으며 수료자 전원은 앞으로 소속팀의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부산 윤성노 편집위원〉

대구직할시협회

경기규칙 강습회 실시

대구직할시협회는 3월 7일 대구체육회 강당에서 경기규칙 강습회 및 심판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교육에는 일선 사범 및 각 팀의 코치와 감독, 심판자격소지자 150명이 참가했다.

제5회 남대구 J.C 회장기 대회, 신천국민학교 우승

태권도 꿈나무 육성 및 우수 선수 발굴과 어린이 태권도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개최되는 남대구 J.C 회장기 대회(회장 원영식, 서문백화점 대표)가 5회째를 맞아 지난 3월 29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총 270명의 학생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어 신천국민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그 밖에 감투상은 동신국민학교, 장려상 침산국민학교, 미

기상은 동부국민학교가 차지했다.

체급별 우승자는 박진호(아양국) 배근수(칠곡국) 서현욱(신천국) 이제욱(평리국) 엄현철(신천국) 이태형(평리국) 금기철(신흥국) 김보상(신천국) 이동훈(동천국) 김영민(아양국) 현재호(아양국)이 차지했다.

한편 관중들에게는 경품추첨권을 발부하여 자전거 40대, 스케이트보드 20개, 로라스케이트 20개를 선물하였으며 참가 관중 전원에게는 공책과 스케치북을 나누어 주기도 했다.

신임 부회장 5명 선임

대구직할시협회는 오는 10월에 대구에서 개최되는 제73회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하여 대구의 각계 인사 5명을 재무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번에 선임된 부회장은 태양공업사 대표 임이재, 방일산업 대표 이방현, (주)멕시칸 대표 윤종계, 서문백화점 대표 원영식, 변호사 지현태씨등 5명이다.

〈대구 정우득 편집위원〉

인천직할시협회

신임회장에 윤치영씨 취임

인천직할시협회는 지난 5월 23일 협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사의를 표

명한 전 한재수 회장의 후임으로 윤치영 씨를 제 7대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윤치영 회장은 그동안 인천직할시협회 부회장으로 재직해오며 인천의 태권도 발전에 기여해 왔다.

윤치영 회장 약력

- ▲ 1938년생
- ▲ 한양대학교 졸업
- ▲ 제4회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 대표팀 감독
- ▲ 대한민국 체육훈장 기린장수상(1980)
- ▲ 문교부장관 표창장 수상(1988)
- ▲ 현재 인천체고 교사(주임) 인천직할시 체육회 경기력향상 위원
- 인천직할시 고등학교 체육과 연구회 회장

〈인천 이일구 편집위원〉

광주직할시협회

김주훈협회장, 조선대학교 체육대학 학장 취임

태권도인으로 광주직할시태권

태권도 소식

도협회장인 김주훈 조선대 교수가 체육대학장으로 취임했다.



1941년생으로 원광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김주훈 회장은 현재 광주직할시 체육회 이사진을 겸하고 있다.

제6회 광주직할시 어린이 태권왕기 겨루기 대회

제6회 어린이 태권왕기 겨루기 대회가 5.23~24일까지 2일간에 걸쳐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전년도 우승팀인 양동국민학교의 우승기 반환에 이어 13개 단체팀과 개인출전자격으로 250여명의 선수가 그동안 같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였다. 단체팀 수상에는 두암국민학교가 우승을 차지했고, 준우승은 장산국민학교, 3위 양동국민학교, 감투상 월산국민학교, 장려상 태봉국민학교가 차지했다. 한편, 각 체급 우승자에게는 어린이 고급손목시계가 수여되었으며 최우수 태권왕에는 두암국민학교 L-해비급 오세종 선수가 등극하여 부상으로 어린이용 자전거를 부상으로 받았다.

승품단 심사대회 실시

광주직할시협회는 6월 7일 영주종합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하여 734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품단별로는 1품이 397명, 2품이 143명, 3품이 28명, 1단 82명, 2단 40명, 3단 26명, 4단 13명, 5단 5명이다.

(광주 윤웅석 편집위원)

강원도협회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강원도협회는 5월 12일 원주시 팔벌체육관에서 승품단 심사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심사에는 총 1563명이 합격했다.

품단별로는 1품 599, 2품 234, 3품 49, 1단 494, 2단 98, 3단 50, 4단 28, 5단 11명이다.

(강원 최찬영 편집위원)

충청북도협회

2회의 심판보수교육 실시

충청북도협회는 태권도대회에서 공정한 심판으로 심판원들의 권위를 높이고 개정된 경기규칙의 홍보를 위해 심판보수교육을 실시했다.

4월 5일과 5월 16일 두차례에

걸쳐 실시된 이번 교육에는 충청북도내 심판원 및 일선 도장의 관장, 사범, 코치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되었다.

제16회 충북 국민학교연맹 회장기 청주 남성국민학교 우승

충북협회는 지난 4월 25일 충북 학생회관 체육관에서 국민학교 연맹(회장 김장배) 회장기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겨루기보다도 품새대회에 더 많은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자랑하기도 했다.

겨루기대회의 체급별 우승자는 반재희(증평국) 김성중(도담국) 임병렬(남성국) 이기영(교동국) 최경철(유리국) 이주영(남성국) 연창수(서원국) 김신영(유리국) 장창섭(도담국) 민병기(덕성국) 정우영(무극국)

품새부문은 이승호(서원국) 최승명(주성국) 임경숙(사직국)이 차지했다.

이번대회의 종합우승은 청주 남성국민학교, 2위 청주 덕성국민학교 3위는 청주내덕국민학교가 차지했다.

지도자상은 이번대회에서 남성국민학교를 우승으로 이끈 남성국민학교의 이근택 교사에 수여되었다.

제21회 소년체육대회

4년만에 부활되는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해 지난 5월 8일과 9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과 시범단 용인자연농원서 시범

대한체육과학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 연구회(BLACK TIGER)는 용인자연농원에서 주최한 장미축제 겸 크로스 컨트리 자건거대회의 공개 행사에 태권도 시범을 보였다.

이날 용인자연농원을 방문한 수많은 관중들에게 기본 동작, 품새, 위력격파, 호신술, 고난위도의 격파에 이르기까지 태권도의 전반적인 진수를 보여주었다.

태권도전용도서관 설립에 필요한 기금마련 및 자료수집

저개발국가에 태권도용품 보내기 운동전개

대한체육과학대학 태권도학생회는 학내에 태권도 도서관을 설립하기 위해 태권도에 관련된 자료수집 및 모금운동을 펴고 있다.

또한 아프리카 저개발국가에 태권도용품(호구·도복·타겟트·헤드기어 등)을 보내 태권도의 범세계적인 저변확대를 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태권도학과학생회 임원들은 7월 3일부터 전국순회 모금운동 및 자료수집, 용품수집에 나섰다.

BLACK TIGER 시범단은 각대학의 축제 및 체육대회의 많은 시범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팀장을 맡고있는 태권도학과 3학년 박상현군은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BLACK TIGER 시범단의 고난위도 위주의 새로운 기술을 보여주고 싶고 세계적인 시범단으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범단원들은 열심히 훈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권도학과 학회장 박장기군은 「태권도 도서관 개관은 태권도에 대한 사료적 가치로서 뿐만 아니라 태권도인들의 학문적 탐구와 연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고 봅니다. 또한 도장에서 입다가, 쓰다가 남아있는 용품들 모두가 저개발국가에서는 절실히 필요한 것들입니다. 저희가 직접 찾아가지 못하더라도 사랑을 나누는 의미에서 저희 학생회로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며 태권도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했다.

태권도 소식

일 충북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충북소년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중등부 체급별 우승자 11명은 대구에서 개최되는 전국소년체전에 충북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게 된다.

국민학교부 우승자는 김선중(단양 도담국) 이창선(증평국) 배진태(덕성국) 정명지(제천의림국) 임태은(음성수봉국) 정상준(충주성남국) 장경주(충주 남한강국)

중학교부는 청주중학교에서 유인평 구지형 김형구 김항수 박동철 이정태 문성일 김형오 최나중 등 9명이 우승을 차지해 태권도 명문으로서의 위용을 자랑했고 청주남중의 김동주와 김현호가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 of 종합우승은 청주시, 2위는 충주시, 3위는 제천시가 각각 차지했다.

제9회 체육청소년부 장관기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개최

올해 개교식과 함께 문을 연 충북체육고등학교(교장 백승탁) 주관으로 지난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충북 청주시 각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체육고등학교의 중점육성종목 10종목에 전국의 9개 체육고등학교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는 충북체고가 8체급중 4체급을 석권하는 실력을 보여주며 종합우승을 차지해 체육청소년부 장관

배 및 상장을 차지했으며 2위는 부산체고 3위는 대전체고가 차지했다.

체급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종천(충북체고) 유영택(대전체고) 이동규(대전체고) 민경환(충북체고) 이상훈(부산체고) 김동민(충북체고) 이동환(서울체고) 장우화(충북체고)

1차 승품단 심사대회 실시

3월 22일 충북협회 체육관에서 92년도 승품단 심사대회를 실시했다.

총 851명이 승단한 본 심사대회의 품단별 현황을 보면 1품 532명, 2품 140명, 3품 33명, 1단 78명, 2단 50명, 3단 17명 4단 1명이다.

<충북 박한규 편집위원>

전라북도협회

제12회 교육감배 대회 개최

제12회 교육감배타기 단체대항전 및 개인선수권 대회가 5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부별종합우승은 송광국민학교(국교부), 군산중앙중학교(중등부), 군산중앙고등학교(고등부), 흥덕중학교(여중부), 김계북고등학교(여고부)가 각각 차지했다.

전북 소년체전 개최

전라북도 소년체육대회가 5월 13일과 14일 2일간 전주완산중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시군별 국교부와 중등부 경기가 펼쳐진 이번 대회에서 국교부는 1위 고창군 2위 정읍 3위 군산시, 중등부는 1위 군산시 2위 고창군 3위 전주시가 차지했다.

제73회 전국체육대회 최종 선발전대회

오는 10월 11일부터 16일까지 대구 계명대체육관에서 열리는 전국체육대회에 파견될 전라북도 선수 8명(고등부)이 확정되었다. 전북협회는 지난 6월 8일 전주 상무관에서 제73회 전국체육대회 최종선발대회를 가졌는데 체급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핀급 : 홍호삼(체육고)
- ▲플라이급 : 고동완(체육고)
- ▲밴텀급 : 이남규(체육고)
- ▲페더급 : 정관영(완주고)
- ▲라이트급 : 남궁환석(체육고)
- ▲웰터급 : 양정석(완산고)
- ▲미들급 : 송민오(체육고)
- ▲헤비급 : 김태영(전주농고)

제2차 승품 및 승단대회

제2차 승품 및 승단대회가 어린이의 날인 5월 5일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실시되었다.



품·단별로는 1품 565명, 2품 182명, 3품 50명, 1단 208명, 2단 100명, 3단 48명, 4단 9명, 5단 1명 총 1163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전북 이윤영 편집위원)

품 94명, 3품 15명, 1단 167명, 2단 79명, 3단 30명, 4단 5명, 5단 2명이다.

제1회 KBS 광주방송총국 장기 초중·고등학교 태권도대회

KBS 광주방송총국장기 태권도대회를 신설되어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광주구동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초등부 단체 8팀, 개인 46명, 중등부 단체 7팀, 개인 96명, 고등부 단체 11팀, 개인 34명 등 총 306명이 참가한 가운데 우승의 고지를 향한 치열한 접전이 펼쳐져 여수남국민학교, 여수중학교, 여수고등학교가 부별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각부별 우승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초등부(11체급) 한해진, 양은정, 정세훈, 문성빈, 최재중,

전라남도 협회

3·5월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전남협회에서는 3월과 5월중 응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광양실내체육관, 목포유일경기장, 영광실내체육관에서 심사대회를 개최하고 총 1,830명의 유품·단자를 배출하였다.

품(단)별로 합격자를 보면(3월 29일자) 1품 487명, 2품 149명, 3품 27명, 1단 170명, 2단 91명, 3단 53명, 4단 20명, 5단 2명(5월 31일자) 1품 335명, 2

태권도 소식

백승일, 박형남, 양운찬, 정재용, 김유호, 김영진

▲중등부(11체급) 한정현, 박유천, 조정현, 이후현, 김형태, 안우동, 김정길, 고우수, 윤재상, 이규립, 손봉현

▲고등부(8체급) 정준호, 오선호, 김대성, 조진호, 김태현, 박상복, 빙원철, 박준택

춘계종별 남녀 태권도 선수권대회

신인선수들이 기량을 측량하는 춘계종별대회가 4월 4일부터 5일까지 평주구동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어 치열한 접전이 펼쳐졌다.

부별 우승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남자중등부

고재일(수북중) 김문간(신북중) 김황기(풍양중) 박수을(덕인중) 박원주(풍양중) 박기현(풍양중) 류승현(풍양중) 한종식(풍양중) 이관선(약산중) 양근호(금천중) 양희경(금천중)

▲남자고등부

최상범(순천공고) 최동호(북평중고) 신두환(담양고) 이기재(담양공고) 유창민(담양고) 공승희(담양공고) 이근석(창평고) 김병학(담양공고)

▲여자부

김은미(화순고) 박애순(화순고) 주경화(학다리고) 임은옥(구례고) 김보영(신명여상고) 최은희(구례농고) 김영희(담

양여고)

품새보수교육 실시

전남협회에서는 4월 19일 전남체육회관내 태권도훈련장에서 전남일원 관장 및 사범 135명이 참가한 가운데 품새보수교육이 실시되었다. 그중 타의 모범이 된 6명에게는 상장과 금뱃지를 수여했는데 모범수상자는 김경호(목포화랑체육관장) 방경남(나주흑룡체육관장) 임덕택(여수동국체육관장) 임병영(승주서면체육관장) 이종연(장성체육관장) 윤홍복(남해체육관장)

제31회 전라남도민체육대회서 태권도 모범경기단체상 수상

3백만 전라남도민의 화합을 다짐하는 전라남도민체육대회가 나주시에서 성대히 그 막을 올렸다.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15개 경기종목이 나주시 곳곳에서 개최되었으며, 27개시군에서 1048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태권도는 나주시종합체육관에서 경기를 치루었는데 1위 여수시, 2위 나주시, 3위 영광군이 차지했다. 체급별 우승자를 보면, 유창호(영광군) 신두환(담양군) 장선택(동광양시) 강재원(영양군) 임채수(동광양시) 김태우(영광군) 박은석(동광양시) 고영철(영광군)

이번 전라남도체육대회 종합

러시아땅에 “코리아 돌풍”

충남대태권도팀 러시아공화국독립기념대회 우승

대전직할시 남자 대표팀인 충남대가 제1회 러시아 공화국 독립기념 국제 태권도 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 대전 태권도의 명예를 한껏 빛냈다. 레닌그라드 경기장에서 열렸던 이번 대회에서 충남대는 플라이급의 민경철이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등 금5, 은1개를 획득하여 종합 1위에 올라 러시아 공화국에 한국의 일을 깊게 심어 주었다.

특히 이번 대회에는 러시아 공화국을 비롯, 구 소련에서의 독립국가등 17개국이 참가, 열전을 벌였는데 대회기간 동안 현지 국영 T·V에서 전경기를 생중계 하는가 하면, 각 언론의 열띤 취재경쟁속에 대회를 치러 충남대의 활약은 민간외교 차원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이는 현재 모스크바에 4개의 태권도장이 성공리에 운영되고 있는 등 한국과의 교류 확대

와 함께 한국 태권도가 깊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시점에 한국 태권도의 진수를 충남대 선수들이 보여줘 러시아 전역에 태권도붐을 조성했다. 더욱이 극심한 생필품난을 겪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치른 레닌 경기장에는 연일 관중이 만원을 이뤄 러시아에서의 태권도협회 부회장이며 금번 대회 집행위원장인 최경철(교포4세, 4단)씨는 「이번 러시아 태권도 대회에서 보여준 한국 선수단의 수준 높은 기량은 러시아 전태권도인을 매혹 시켰다」고 극찬하였다. 이번 경기를 기폭제로 태권도가 러시아 NOC의 적극 후원 아래 러시아 공화국 등에서 활성화 되고 있어 머지 않아 가장 사랑 받는 무술 및 스포츠로 정착될 전망이다.

러시아 태권도인들의 경우 대부분 태권도를 하기전에 다른 운동을 했던 경력자들이 많아

비교적 우위에 접한 태권도가 널리 보급되기는 시간 문제라고 보여진다. 이번 대회에 한국팀 단장으로 참가한 한용석 대전 태권도 협회장은「무엇보다도 배우는 학생들에게 러시아를 조금이나마 알게 해 준것이 보람이다」며 「한국이 러시아에 많이 알려져 있는 점에 놀랐고 그들에게 한국에 대해 무언가 알려줬다는 것이 큰 성과 인것 같다」고 밝혔다. 박현섭 감독은 「러시아 선수들이 아직 경기규칙에 대하여 익숙하지 못하나 발전할 가능성과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회를 마치고 모스크바 태권도 대표 선수단은 교포4세인 비탈리 박씨(39)의 인솔로 10명이 대전을 방문, 1주일간 대전체육고등학교 및 충남대에서 훈련을 실시했다.

〈대전 오노균 편집위원〉

우승은 나주시, 2위는 여수시, 3위는 고흥군이 안았다.

한편 태권도는 모범경기 단체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제9회 국민학교대항 태권왕기 겨루기대회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전남체육관 태권도훈련장에서 단

제 4팀, 개인 61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의 종합우승은 여수미평국민학교, 2위 여수남국민학교, 3위 목포서산국민학교가

태권도 소식

차지했다.

계급별 우승자를 보면 정종식(미평국교) 이재일(신북국교) 김성영(서산국교) 문성빈(여수남국교) 박찬호(미평국교) 박영남(영수남국교) 김인철(나주산포국교) 민대홍(나주국교) 김유호(여수남국교) 김영진(이로국교), 개인 최우수상은 여수남국민학교 이재현이 차지했다.

제73회 전국체육대회 12차 예선대회

4월 25일부터 26일까지 1차예선대회를 개최하였고, 2차예선대회는 5월 23~24일 광주구동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총 352명이 참가하였는데 각부체급별 1·2·3위에 입상한 선수들은 7월 25~26일 전남체육회관 내 태권도 훈련장에서 최종선발대회가 있을 예정이다.

(전남 김현수 편집위원)

경상북도협회

제29회 학도체전 및 제4회 소년체전 의성군 우승

경북 학도들의 힘겨루기인 학도체전 및 소년체전이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14개시군팀이 참가한 가운데 안동국민학교 체육관에서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초등부와 중등부

경기가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도교육위원회의 무성의로 초등부 경기를 무산시키는 촌극을 벌여 각학교의 담당자 및 일선 태권도지도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이번 대회의 종합우승은 4년 우승의 의성군을 비롯하여 2위 봉화군 3위 구미시가 차지했다.

제30회 경북 도민체육대회

경북 도민의 화합을 다짐하는 제30회 도민 체전이 『모범·질서·화합체전』이라는 구호 아래 6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신라 천년의 도읍지로서 삼국통일의 성업을 이룩한 화랑정신과 민족문화를 꽃피웠던 조상의 슬기가 면면히 이어져오는 경주 경주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치무어졌다.

특히 이대회에서 최대환 경주시 태권도협회장을 중심으로 고문단 임원 전원이 대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써 태권도관계자들의 치하를 받았다. 군과 시로 나뉘어 실시된 이번 대회에서 군부의 1위는 문경군 2위 경주군 3위 경산군이 차지했고 시부에서는 1위 경주시 2위 영천시 3위 포항시가 차지했다.

'02년도 신인선수권대회

경북 신인선수권대회가 3월 30일과 31일 양일간 대구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어 신인강자를 배출했다.

화랑체육관 김종연관장
「태권도와 사회체육」 발간



일선에서 도장을 운영하며 태권도를 지도해온 김종연씨가 유단자 및 지도자를 위한 태권도 지침서를 펴냈다.

크라운출판사에서 발행한 유단자 및 지도자를 위한 「태권도와 사회체육」의 구성은 1장부터

초등부 99명, 중등부 107명, 고등부 151명, 일반부 19명, 여자부 20명 등 총 396명이 출전해 치열한 경쟁끝에 제급별 우승자가 탄생되었다.

부별 제급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초등부

박성우(성산국) 송용희(양정국) 이동환(제일국) 임태훈(서부국) 김차현(영화국) 이용주(형곡국) 송한범(양정국) 권태규(형곡국) 하현출(영화국) 김영진(영화국) 김영주(양정국)

▲중등부

김용현(봉양중) 박영준(영천중) 임형진(청리중) 김민기(은척중) 차영철(낙운중) 노

5장까지가 사회학, 생리학, 역학, 영양학, 건강교육을 태권도와 접목시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으며 6장과 7장이 태권도 지도자 지침론과 체육관 운영론으로 일선 태권도 지도자들이 지도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각종 이론 및 자료를 상세히 제시해주고 있다.

저자인 김종연씨는 명지대학 졸업과 단국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했으며 현재 석관동에서 화랑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다.

구갑(경북체중) 금인배(영주중) 강정대(영주중) 김시근(청리중) 김윤길(낙운중)

▲고등부

이원설(대영고) 박성익(영천고) 박재형(영천고) 김경부(영천고) 신상용(이서고) 이동훈(영천고) 차건욱(금오공고) 신종용(영광고)

▲일반부

이재동(중앙체) 최영식(안강체) 신원섭(장충체) 손명호(의성체) 김진식(경북체)

▲여자부

여상희(성산중) 조영란(구미여상) 이미애(영청여중) 김희영(경북체고) 박해주(상주여상) 임경옥(감포중고)

〈경북 신용우 편집위원〉

경상남도협회

임원개편 및 전문위원회 구성

경상남도 협의회 '92년도 임원 및 전문위원회가 지난 2월 28일에 완전히 구성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 주요 조직과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협회장: 이순달
- ▲ 전무이사: 김선규
- ▲ 총무이사: 권영춘
- ▲ 자문회의 의장: 김태운
- ▲ 질서대책위원회위원장: 조희삼
- ▲ 회관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배영식
- ▲ 사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종
- ▲ 전문위원회위원장: 진귀운
- ▲ 사무장: 김정옥

경남신인선수권대회 개최

제15회 경상남도 태권도 신인선수권 대회가 5월 16일, 17일 양일간 중등부 110명, 고등부 307명, 일반부 64명 등 총 481명의 선수가 출전한 가운데 창원 학생 체육관에서 성대히 개최되었다. 열전을 거듭한 끝에 각 제급의 우승자가 가려졌다.

- ▲ 중등부: 최우준 김현진 강정환 김영규 박수열 이필주 이경관 윤성환 김인철 권태영
- ▲ 고등부: 조현길 허길용 장원호 김성우 이준성 승진식 김명일 방성원

태권도 소식

이용환, 코치협 2기회장으로

한국태권도코치협회의는 대통령기대회 기간중인 6월 19일 제주도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이용환(인천광역시 교사) 코치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주신규 코치(국가대표 코치)에 이어 2기회장으로 선출된 이 코치는 「태권도경기의 보다 성숙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향후 상조활동의 강화와 코치들의 지도능력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및 태권도논문모음집 발간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일반부 : 배대길 황전우 황성민 박철현 박홍주 진영채 이정수 박효진

승품단 심사대회 개최

경상남도 협회는 5월 31일 창원 학생 체육관에서 1,800 여명의 응시자가 참여한 가운데 제 106회('92년도 제2회) 승품단 대회를 개최하였다.

이순달 회장은 대회사에서 응시자들이 평소 연마한 실력 유감없이 발휘하여 경남 태권도의 기술수준을 한층 더 높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심사에 앞서 시범분과 최상균 위원장과 20 여명의 제자들이 격려 및 연무시범을 보여 응시자 뿐만 아니라 같이온 학부모

의 아낌없는 갈채를 받았다.

이번 심사에는 1품 884명, 2품 235명, 3품 54명, 1단 317명, 2단 105명, 3단 62명, 4단 11명 그리고 5단 10명 등 총 1,732명이 합격했다.

신임 「태권도」지 편집위원에 김성실씨

「태권도」지 경남지역편집위원이 교체되었다. 권영춘 전 위원이 협회 총무이사로 발탁됨에 따라 김성실 위원이 임명되었다. 김 편집위원은 협회 기록분과 위원장으로 의령군 태권도협회 부회장이며 의령여중 교사로 재직하고 있다.

(경남 김성실 편집위원)

재브라질협회

재브라질 대한태권도협회(회장 : 이계준)는 브라질태권도연맹과 태권도사범협회의 주관으로 지난 6월 6일 상파울로주 Marinque시 체육관에서 작년에 이어 두번째 사범직 전국태권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대회에는 총 8개주가 참가한 가운데 주대항 단체전으로 열렸는데 히오그란데도쉴주가 지난해 우승팀인 상파울로주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대회에 앞서 식전행사로 태권도시범이 있었으며 개최식에서는 재브라질 총영사관을 대표해

칠레 한국컵 태권도대회 개최

칠레 태권도연맹과 대한민국 대사관주최로 5월 23일과 24일 Manuel Plaza체육관에서 한국컵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칠레의 태권도보급과 한국과 칠레간의 유대강화, 주재 한인 상호간 친목도모 및 단결력 배양 등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된

이번 대회에는 40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고 7000여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메우는 대규모 대회였다.

이는 칠레의 최고인기종목인 축구경기 다음으로 최대의 관중이 관전하는 성과를 거둔것으로 칠레내 태권도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고 한다. 또

한 대사관, 주재상사 및 한인들의 자발적인 성금이 모여져 풍족한 대회를 치루었고 대사 및 한인회장 등 한국측 인사 뿐만 아니라 칠레 체육계인사 및 고위 인사들이 동참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되어 매년 연례행사화 할 예정이라고 한다.

서 정지현 영사의 축사가 있었다.

한편 브라질태권도 발전에 공로가 큰 김정열 사범(히오테자네이로), 신팡수 사범(마포 그로소 도술)에게는 대한태권도협회 최세창 회장의 표창패가 전달되었다.

국 기 원

기술심의위원회 임원 임명

국기원은 1922년 기술심의위원회 임원을 전원 유임시킨 가운데 임명장을 수여했다.

—의 장 : 황춘성

—부의장 : 김용서, 전재규, 장기승

분과위원회

기 획
심 사
과 학
국 제
사회체육
교 육
편 집
연 구
시 범
상 별
협 력

위원장

최대웅
김중영
임홍수
이덕태
이규현
고동준
구정도
안해욱
이규형
김정대
강영복

부위원장

한용석, 김용수
임운택, 심재의, 박용화
김장식, 허영길
임용규, 김학근, 최완길
박찬수, 김진위, 김관중
서민중, 이성용
전만욱, 이고범
이상구, 김기일, 박재룡
박종명, 최재무, 이종관
이학천, 이동섭, 최정선
김영철, 한상국, 맹만호

▲지도위원 : 이영섭, 권경욱, 박명수, 강정규, 문창남



제7기 태권도 지도자 교육

5.11-5.20, 지도자 연수원

20세 이상의 4단 이상자로 태권도 사범자격을 획득하게 되는 지도자 교육이 지난 5월 11일부터 20일 까지 태권도지도자

재미 태권도 이준구 사범, 부시대통령으로부터 “아메리칸 스토리상” 수상

태권도 사범으로 청소년 선도에 이바지한 공로로 재미 태권도 이준구 사범이 지난 5월 28일 부시대통령으로부터 “아메리칸 스토리상”을 수상했다.

“아메리칸 스토리상”은 미국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단체나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5월 28일 LA 하얏트 리젠시 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전통주간 기념 대통령 만찬회 석상에서 상을 수여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이준구 사범외에도 4.29 LA 폭동 당시 한인들의 결속에 이바지한 라디오 코리아 방송(사장 이장희)에게 수여되었다.

연수원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에는 총236명이 신청, 국기원 수용능력부족으로 일부 신청자를 72기 교육에 배치하기도 했다. 71기 교육에는 180명이 사범자격증을 획득했다.

수료식에는 조관현 신용구 김옥수 김용근 조청 박진형 이석환 고영남 한둘네 이근우 등 10명이 국기원장 표창장을 받았다.

제15기 태권도 2급 경기지도자연수과정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실시된 2급 경기지도자 연수과정이 150여명의 수강자가 참가한 가운데 국기원 지도자연수원에서 실시되었다.

수료생들은 오는 7월 10일 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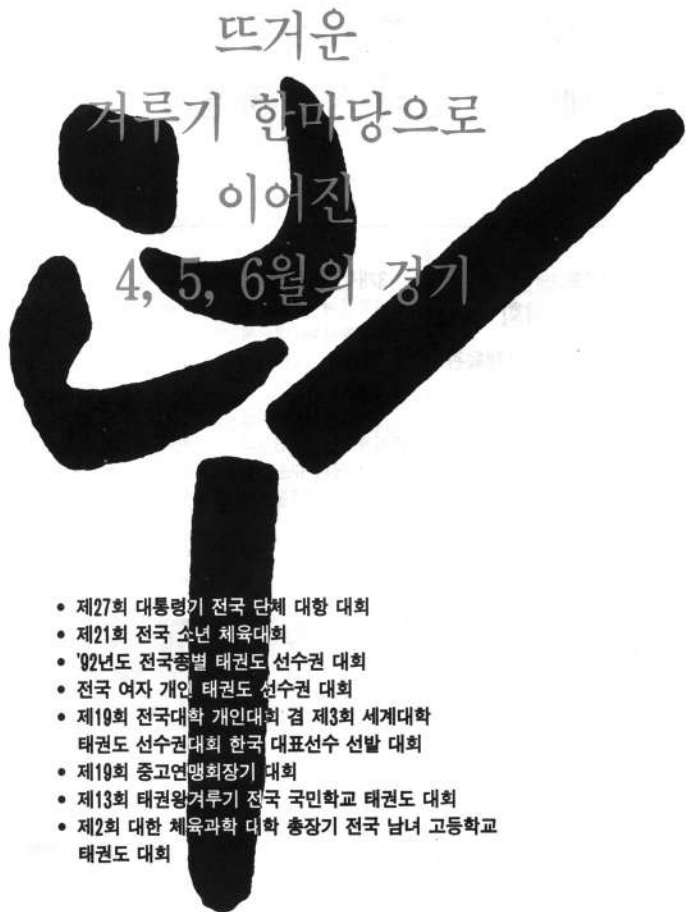
가검정시험을 거쳐 2급경기지도자자격증을 획득하게 된다.

제6기 생활체육지도자연수교육실시

태권도 종목에 한해 국기원 태권도지도자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3급생활체육지도자교육이 7월 3일부터 11일까지 실시된다.

국민의 생활체육을 올바르고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를 양성하는 3급 생활체육지도자교육의 대상은 태권도 4단 이상자로 사범자격증소지자로 6월 26일 구술시험과 면접을 거친 후 교육에 들어갔다.

수료생들은 7월 12일 자격검정시험을 보는데 합격자 명단은 7월 18일 발표된다. **한국태권도**



뜨거운
겨루기 한마당으로
이어진
4, 5, 6월의 경기

- 제27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 대항 대회
- 제21회 전국 소년 체육대회
- '92년도 전국종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 전국 여자 개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
- 제19회 전국대학 개인대회 겸 제3회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한국 대표선수 선발 대회
- 제19회 중고연맹회장기 대회
- 제13회 태권왕겨루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대회
- 제2회 대한 체육과학 대학 총장기 전국 남녀 고등학교 태권도 대회

지하철, 대전체고 만년2위 설움닫고 비상 한국체대 2년만의 정상 재등극

제27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대회

6.19-22, 제주 한라체육관

3개부 104개팀 참가
대통령기 준우승 단골인 서울 지하철공사와 대전체고가 격류를 거슬러 올라 마침내 등용문에 올랐다.

지하철공사는 '86년 창단 이래, 대전체고는 '86년부터 입상권에 서만 땀흘려 6년만에야 양팀 모두 우승의 감격을 맛보게 되길.

6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제27

회 대통령기 전국 단체대항대회는 3개부 104개팀 701명의 대규모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첫날 개최식에는 협회 최세창 회장과 제주도 우근민지사 등 제주지역의 모든 기관장이 참석하고 관중석에도 입추의 여지가 없이 많은 관중이 입장해 제주지역의 태권도 열기를 짐작케 해 주었다.

전년도인 26회대회보다 10여개팀 100여명의 선수가 더 출전해 성황을 이루었으나 다소 무리한 경기일정과 복합방식 단체전에 따른 많은 유명(?) 선수들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은 매끄럽지 못했다는 중평.

단체우승보다는 개인 전적을 위해 이름만 참가한 선수가 많아 100여명의 체체불참자가 나오므로써 단체전으로서의 의미를 상실케 하였다. 대통령기가

127회 대통령기 타기 전국대회

주최: 대한태권도협회



▶홍중수부회장이 제주도협회 정이수회장에 감사패 수여

태권도 단체전의 최고명예로서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팀별대항으로 실질적인 단체전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부 3파전 각축 다크호스 대전시 동구청

일반부 대통령기 쟁취를 위해 출사표를 던진 17개팀중 처음부터 유력후보로 떠오르틴은 역시 1,2,3위를 차지한 지하철, 상무, 현대자동차.

상무는 '84년이래 6회우승의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실업팀으로서의 유일하게 우승경력(2회)을 가진 강호. 이에 맞선 서울지하철공사는 코치(이상헌)를 비롯해 선수 전원을 교체해 일선된 분위기로 출전하였다.

지하철, 상무, 현대자동차는 결승에 각각 4, 3, 3체급씩을 올려놓고 본격적인 메달레이스에 돌입하였는데, 결승에 2체급을 올린 다크호스 대전시 동구청팀이 교통정리를 하고 나섰다.

밴텀급결승에서 대전 동구청(권혁선)이 현대자동차(이승욱)을 누른 반면, 페더급(이선장)에서는 서울지하철(임석섭)에 패함으로써 두 실업팀간의 격차를 벌여 놓았다.

상무와 지하철의 최후 대회전(大會戰)은 미들과 헤비급 결승.

앞서 6체급에서 상무는 금1,



대학부 우승 한체대, 2위 경희대, 3위 관동대

동2, 지하철은 금1, 은1, 상무는 2체급 모두를 이겨야 하는 불리 함속에 25회(대구)대회 우승의 주역, 전 국가대표 윤순철이 나섰다. 지하철의 신예 방영인에게 패퇴함으로써 헤비급의 결과에 관계없이 지하철 공사는 창단 6년의 긴여정 끝에 대통령기 쟁취의 감격을 맛보았다.

한편 웰터급에 단기필마로 뛰어난 이창건(경산시청, 전 국가대표)은 동구청, 현대자동차팀을 연파하며 우승, 노익장을 과시하여 눈길을 모았다.

지도상에는 서울지하철공사팀의 김영희 감독에게, 우수선수상은 주장인 김현일에게 각각 돌아갔다.

경희대, 통한의 라이트급
22개팀 155명이 출전한 대학

부는 전년 우승팀인 동아대와 쟌통강호 한국체대, 권도중래(捲土重來)의 경희대의 격돌이 예상됐으나 동아대가 예선에서의 부진으로 우승권에서 일찍 멀어짐에 따라 한국체대와 경희대의 일전으로 압축.

경희대와 한국체대는 결승에 각각 4,3체급을 올려놓고 대회전에 돌입하였다. 결과적으로 라이트급을 제외한 타 체급에서 각각 2개씩의 금메달을 차지한 두 팀의 마지막 전장은 라이트급, 박세진(경희대) 대 정광재(한국체대)의 건곤일척 판판겨름은 「대통령기는 운이 따라야」 한다는 속설을 그대로 입증.

3회전 종반까지 3:2, 경고2에 의한 감점1로 박세진의 승리가 거의 굳어져 가는 상황에서 박의 지나친 소극적 경기에 따라

종료 30초, 4초를 남겨놓고 경고 두번을 받아 감점에 의한 역전패를 당함으로써 통한의 분투를 삼켜야만 했다.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 진」 경희대(금2, 은2, 동2)는 7년만의 왕좌복귀에 실패하고, 금3동1의 한국체대는 2년만에 다시 우승기를 가져가는 기쁨을 만끽했다.

한체대, 경희대간의 대결과는 달리 3위를 놓고 다툰 관동대, 조선대, 대한체육과학대의 소규모 각개전투도 치열. 결국 강원도 협회의 강력지원을 받고, 세계대회3연패의 김중기코치가 포진한, 대학부의 새로운 「양광테리블」 관동대(금1, 동3)가 3위로 입성했다.

지도상에는 한국체대 문원재 코치가 우수선수상에는 박재성이 각각 수상했다.

대전체고 화려한 승천

「뚝뚝한 셋」이던 된다는 대령기 고등부.

입상권에만 6년을 머물다 이 무기(?)가 뿔뿔한 대전체고가 마침내 여의주 2개를 입에 물고 화려하게 승천을 했다.

다른 어느 부(部)보다 치열하기로 유명한 고등부에서는 전통의 동성고와 호시탐탐 왕좌를 노리는 대전체고, 서울체고가 주목되었으나, 동성고가 준준결에서 5체급 모두가 좌초되며 노메달의 신기록을 낸 대신, 리라



창단 6년만에 첫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지하철공사

공고가 5체급을 올려 고등부의 물줄기는 다른 방향으로 틀어졌다.

소수정예로 명성을 날리는 서울체고는 메달권에 올린 2체급 모두 금메달을 획득, 「역시 서울체고」임을 입증했으나 뒤를 받쳐주는 은메달이 없어 일단 우승은 실패.

결승에 각각 3체급씩 올린 대전체고와 리라공고는 두팀이 부딪치는 전면전 없이 타 팀과 싸우는 각개전투에 돌입했다.

대전체고는 밴텀급(이동규)과 라이트급(이승희)에서 금메달을 딴 반면, 리라공고는 페더급에서 서울체고에, 헤비급에서는 대전체고와의 동향 대성고에 패함으로써 서울체고에 의해 3위로 머물렀다.

지도상은 대전체고 이계승교사, 우수선수상은 밴텀급의 이동규 선수에게 수여됐다.

대전팀, 전반적 고른 감세

한편 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제주도는 고등부에서 동메달1개(라이트급 제주체고 이현정훈), 일반부에서 은메달 1개(라이트급 제주도협회 권혁훈)만을 획득, 주최도로서 다소 부진함을 보였다.

이번 대회에서 괄목할만한 성적을 올린 대전시는 대전체고와 대성고, 충남대, 대전시동구청, 대덕구청으로 이어지는, 직할시로서는 보기드문, 탄탄한 연계를 통해 다가오는 전국체전에서 파란을 예상케 하고 있다. **특이점**

1693명의 신인 선수 출전으로 최대 규모 대회

'92년도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고등부 : 4.6-10,
올림픽 제2체육관
중등·일반부 : 4.14-16,
국기원

4월6일부터 10일까지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종별 고등부 대회에는 103개 고등학교에서 945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졌다.

또한 중등부 및 일반부 경기는 4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되어 중등부에 596명, 일반부에 152명의 선수가 출전, 본대회에만 1693명의 신인 선수들이 출전함으로써 태권도의 최대 규모대회를 실감하게 했다.

이번 대회 중 최대의 접전은 206명이 출전한 고등부 편급 경기로 206:1의 경쟁을 물리치고 동성고의 소병관선수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체급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등부)

핀급 : 류인평 (청주중)
플라이급 : 홍기상 (공릉중)
밴텀급 : 정민철 (부천동중)
페더급 : 홍범석 (부천동중)

라이트급 : 안정일 (한영중)
라이트 웰터급 : 박기호 (영남중)
웰터급 : 유병대 (대신중)
라이트 미들급 : 오재화 (함열중)
미들급 : 이효득 (영북중)
라이트 헤비급 : 염 균 (용봉중)
헤비급 : 하세웅 (부천동중)

(고등부)

핀급 : 소병관 (동성고)
플라이급 : 김태훈 (대전대성고)
밴텀급 : 박정우 (서울체고)
페더급 : 박민섭 (광주체고)
라이트급 : 김경훈 (동성고)
웰터급 : 심기선 (대전체고)
미들급 : 신원조 (부산체고)
헤비급 : 심재섭 (동성고)

(일반부)

핀급 : 이만석 (현대정공)
플라이급 : 안대섭 (인천전문대)
밴텀급 : 박만석 (인천전문대)
페더급 : 방영옥 (팔봉전산원)
라이트급 : 서재춘 (팔봉전산원)
웰터급 : 김영남 (체육선교신학교)
미들급 : 류재민 (체육선교신학교)
헤비급 : 유대환 (산돌체육관)

1693명의 신인 선수 출전으로 최대 규모 대회

'92년도 전국 종별 태권도 선수권대회

고등부 : 4.6-10,
올림픽 제2체육관
중등·일반부 : 4.14-16,
국기원

4월6일부터 10일까지 올림픽 제2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종별 고등부 대회에는 103개 고등학교에서 945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졌다.

또한 중등부 및 일반부 경기는 4월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국기원에서 개최되어 중등부에 596명, 일반부에 152명의 선수가 출전, 본대회에만 1693명의 신인 선수들이 출전함으로써 태권도의 최대 규모대회를 실감하게 했다.

이번 대회 중 최대의 접전은 206명이 출전한 고등부 편급 경기로 206:1의 경쟁을 물리치고 동성고의 소병관선수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그 밖에 체급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중등부)

핀급 : 류인평 (청주중)
플라이급 : 홍기상 (공릉중)
밴텀급 : 정민철 (부천동중)
페더급 : 홍범석 (부천동중)

라이트급 : 안정일 (한영중)
라이트 웰터급 : 박기호 (영남중)
웰터급 : 유병대 (대신중)
라이트 미들급 : 오재화 (함열중)
미들급 : 이효득 (영북중)
라이트 헤비급 : 염 균 (용봉중)
헤비급 : 하세웅 (부천동중)

(고등부)

핀급 : 소병관 (동성고)
플라이급 : 김태훈 (대전대성고)
밴텀급 : 박정우 (서울체고)
페더급 : 박민섭 (광주체고)
라이트급 : 김경훈 (동성고)
웰터급 : 심기선 (대전체고)
미들급 : 신원조 (부산체고)
헤비급 : 심재섭 (동성고)

(일반부)

핀급 : 이만석 (현대정공)
플라이급 : 안대섭 (인천전문대)
밴텀급 : 박만석 (인천전문대)
페더급 : 방영욱 (팔봉전산원)
라이트급 : 서재춘 (팔봉전산원)
웰터급 : 김영남 (체육선교신학교)
미들급 : 류재민 (체육선교신학교)
헤비급 : 유대환 (산돌체육관)

경기 서릉, 서울강덕 국민학교 남녀부 종합우승 차지

제13회 태권왕겨루기 전국 국민학교 대회

5.9-10, 한양대체육관



윤선기

대회 부임원장

맑은 하늘, 푸른 5월, 힘찬 한양대체육관에서 제13회 어린이 태권왕겨루기 전국국민학교 대회가 5월9일과 10일, 4,000여 관중과 더불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맘으로 깔고 투지로 닦은 어린이들의 보무당당한 모습은 한국 태권도의 믿음직한 주춧돌을 보여 주고 높고 든든한 자랑스런 기둥을 확인시켜 주었다.

서울 남산 청년회의소와 한국 국민학교태권도연맹 공동주최로 한국J·C의 강령과 연맹의 사업 목적을 접목시켜 미래의 주인공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

개회식에서 한국국민학교태권도연맹 임정태회장은 21세기 세계태권도를 짚어주고 나아가 선수어린이들은 태권도의 새로운 방향과 번영하는 한국의 모습을 활짝 열어 찬연한 태양처럼 우뚝 솟아야 한다고 당부했으며 최세창 태권도협회장은 태권도 정신이 바로 애국애족하는 정신


임을 강조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훌륭한 일꾼이 되라고 격려했다.

선수대표선서는 작년에 이어 웰터급에서 2연패한 강덕국교 김지우양의 야무진 입술에서 사자후를 토해냈다.

이번 대회에서 남자부는 경기 서릉국민학교, 여자부는 서울 강덕국민학교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은 남연식(경기서릉), 김유미(서울강덕), 김종성(서울미동), 최우수 지도자상은 조임형(경기서릉국교지), 박점수(서울강덕국교지)가 수상했다.

대회운영면에서는 전국 규모의 대회라는 점과 두 단체와 공동주최라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경기진행에 어려움도 있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의 이해 관계로 인하여 대회 운영을 방해하는 요소는 근절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대회는 K·B·S 1TV에서 5월17일 오후2시에서 3시까지 녹화되었으며 개그맨 맹구 이창훈의 특별출연으로 출전선수 뿐만 아니라 관람은 어린이들을 즐겁게 했다. 

신인들이 전 국가대표를 누르는 이번 속출로



기술심의회 김인석의장이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있다.

전국 여자 개인 태권도 선수권 대회

5.13-14, 국기원

'92년도 전국여자개인선수권 대회가 5월 13일과 14일 양일간에 걸쳐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만 15세 이상의 여자 선수 172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신인들이 전국가대표를 누르는 이변을 낳으면서 흥미진진하게 치루어 졌다.

특히 충북체고의 천성희는 플라이급 결승전에서 전 국가대표 박은미를 맞아 1회에 4:2 득점으로 앞서가 관중들의 기대를 모은 가운데 2회에 올라 박의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4점을 빼앗기는 가운데 1점을 따내 총 5:6의 역전으로 3회전에 돌입 막상막하의 경기를 보여주었다.

3회 들어서 두 선수 모두 공격을 퍼부우며 2점씩을 추가하는 팽팽한 접전으로 7:8의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경기 종료 10초를 남기고 천성희 선수가 내려차기를 박은미의 몸통에 적중시킴으로써 득점 8:8의 동점을 이루었다.

최후의 판정은 1,2회전에서 경고를 받은 박선수가 마이너스

1점을 기록, 천선수에게 판정승이 돌아갔다.

또한 배성여상의 김옥님 선수도 라이트급 결승전에서 전국가대표 이현화 선수(경희대)를 맞아 1회 2:1 2회 0:1로 2:2 동점을 이루는 가운데 3회전에 돌입 치열한 접전끝에 3:2득점을 추가하며 총5:4로 김옥님 선수가 영광의 우승을 차지했다.

한편, 이번 대회의 결승전 진출자 16명중 7명이 경희대 소속으로 이들중 4채급에서 우승자를 배출, 여자부 최강팀으로서의 위상을 자랑했다.

- (채급별 우승자 명단)
 핀급: 유수진(경희대)
 플라이급: 천성희(충북체고)
 밴텀급: 이화진(경희대)
 페더급: 신동선(리라공고)
 라이트급: 김옥님(배성여상)
 웰터급: 조향미(경희대)
 미들급: 이은주(성신여대)
 헤비급: 백영미(경희대)

체급별 우승자 10월 멕시코 세계대학 선수권 대회에 출전

가 68명으로 총 318명의 선수가 대회에 참가하여 선수들 각자가 그 동안 갖고 있던 기쁨들을 열전 3일 동안 마음껏 발휘하는 태권도의 장이 되기도 했다.

특히 스포츠시즌을 맞아 프로야구, 축구 등의 인기종목에 편중된 방송국의 중계방송 계획에도 불구하고 이정길 회장의 노력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KBS T.V.생중계를 교섭해 이번 경기의 하이라이트인 결승전을 중계하는 성과를 거두어 태권도가 국민스포츠로 자리잡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또한 대회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대회전 대회 포스터를 제작해 각 대학교와 체육관에 배부했고 많은 관중들의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품의 주인공을 찾는 행운권을 발행하여 서울시 각 체육관과 일반 관람객에 배부를 해 대회의 열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다.

대회 1일째 경기

대회 첫날은 회장단 및 임원, 귀빈 여러분과 선수, 지도자 등 많은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운 가운데 육군사관학교 근약대의 연주에 맞춰 엄숙하게 개회 선언이 되었으며, 경기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모든 사항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대부분의 참가선수들이 대회 첫날이라는 긴장감 때문인지 몸이 대체적으로 무겁게 보여 활

한국대학 태권도연맹에서는 1992년 4월 23일 부터 25일 까지 제 19회 전국대학 개인대회 겸 제 3회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한국대표 선발전을 KBS와 제우교역 아디다스, 두산식품의 후원으로 국기원에서 성대히 개최했다.

특히 이번 대회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되는 제 3회 세계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 선발이라는 목적도 있지만 대학 태권도의 활성화와 보급, 그리고 대학 태권도인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데 더 큰 의의가 있었다고 하겠다.

출전대학을 살펴보면, 전국의 26개 대학에서 참가했으며, 참가선수는 남자 A조 선수가 215명, B조 선수가 35명, 여자선수

제 19회 전국대학 개인 대회 겸 제 3회 세계대학 선수권대회 한국대표 선수선발대회

4.23-25, 국기원



지병운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사무국장

력있는 경기를 볼수 없었다.

대회 2일째 경기

각 체급 선수들의 불꽃튀는 경쟁으로 경기장의 열기는 더욱 더 고조 되었고, 매 경기마다 손에 땀을 쥐게하는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쳐 관람객들의 아낌없는 찬사를 받았다.

남자A조 편급 김정오(경원대)선수는 기량이 뛰어난 문성대(한국체대)선수를 맞아 2회전까지 2:2동점을 이루다 3회전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포착해 앞돌려차기 받아차기를 성공시켜 1득점을 취해 승리를 하고 준결승에 진출하는 영광을 얻었다.

여자부 밴텀급 경기에서는 김은숙(체과대)선수가 황태경(동명전대)선수와 대전을 해 적절한 기술발차기를 적중시켜 2점밖에 얻지 못한 황선수를 4:2로 물리치고 결승에 진출했다.

대회 마지막날 경기

각부별 각체급에서 다양한 기량을 과시하며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들이 체급별 우승의 고지를 향해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보여주었던 하루였다.

남자A조 편급에서는 전통적으로 강한 대학팀 선수들을 모두 물리치고 혜성처럼 나타난 김정오(경원대)선수가 우승을 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강자로 부상을 했다.



미들급 결승에서는 영원한 경쟁자인 박종범(한국체대)선수와 세계대회 우승자인 이현석(동아대)선수가 대전을 하게되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결과는 박종범(한국체대)선수가 주특기인 앞돌려차기 기술로 받아차기를 결정적으로 몸통에 성공시켜 우승의 영광을 누리게 됨과 동시에 남자부 최우수선수로 선정이 되어 본 연맹에서 지급하는 장학금까지 수상하는 행운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었다.

여자부에서는 조항미(경희대)선수가 김미영(체과대)선수를 맞아 다양한 기술과 강한 체력으로 상대선수를 밀어 붙여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여자부 최우수선수로 뽑혀 연맹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

남자A조부와 여자부 각체급에서 우승한 선수는 오는 10월

에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되는 제 3회 세계대학 선수권대회에 참가하게 된다.

우리나라 대학 대표팀은 1회, 2회 세계대회에서 종합 우승, 대회 2연패의 업적을 남긴바 있다.

이번 대회에서 선발된 각체급 선수들은 예년에 못지않은 우수한 기량과 체력을 갖춘 선수들로 구성되어 각체급 선수 모두 좋은 성적으로 입상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번 대회의 아쉬운 점이라면 본 연맹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중동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람객들이 경기장을 찾아 주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리고 현재 많은 대학에서 학생동아리 성격으로 태권도부가 구성이 되어 자발적으로 훈련하고 운영되고 있는데 이들 모든 대학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B조 경기를 더욱 활성화해야겠다. 10/20



리라공고(여고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승

제19회 중고연맹회장기대회 5.25 - 29, 잠실학생체육관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제19회 중고연맹회장기 태권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는 남고부 410명, 여고부 170명, 남중부 373명, 여중부 93명 등 총 1,046명이 출전하였으며 팀별로보면 총 186개교가 참가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여 주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송곡고와 선인고등학교가 금메달 2개씩을 획득하며 우승을 다투는 가운데 은메달에서 앞선 송곡고가 우승을 차지하였고 선인고가 준우승, 지난해 준우승을 차지한 동성고가 올해는 3위에 머물렀다.

한편 지난해 우승을 차지한바 있는 대전체고는 메달권에서 탈락하는 이변을 보이기도 했다.

여고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리라공고가 우승을 차지하며 태권도 강팀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었고 배성여상이 준우승을 차지.

중등부는 경수중과 동인천여중이 각각 우승을 차지하는 실

력을 보여주었다.

부별 단체성적은 다음과 같다.

(남고부)

우승: 송곡고

준우승: 선인고

3위: 동성고

감투상: 개금고

장려상: 부산기공

최우수선수상: 김남우(송곡고)

지도자상: 이경식(송곡고교치)

(여고부)

우승: 리라공고

준우승: 배성여상

3위: 광명상고

감투상: 혜성여고

장려상: 김재복고

최우수선수상: 신동선(리라공고)

지도자상: 박영수(리라공고교치)

(남중부)

우승: 경수중

준우승: 영남중

3위: 용곡중

감투상: 청주중

장려상: 부흥중

최우수선수상: 김상혁(경수중)

지도자상: 임순길(경수중교치)

(여중부)

우승: 동인천여중

준우승: 자양중

3위: 대원여중

감투상: 만수여중

최우수선수상: 서정화(동인천여중)

지도자상: 이윤일(동인천여중교치)

남고부 단체전 경기서 대전 대성고 우승 차지

급별 최강자를 가리는 열전을 펼쳤다.

또한 통합 플라이급, 페더급, 웰터급, 헤비급, 무제한급 등 5개체급으로 펼쳐진 단체전 경기에는 남고부가 33개교 165명, 여고부가 15개교 75명 등 총 48개교 240명이 출전했다.

4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최된 개회식에서는 고광득총장이 대회를 통해 한국에서는 최초로 러시아의 레즈 가르프 대학과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태권도를 그들의 정규 학과목으로 채택하게 되었다며 앞으로 소련의 전지역에 태권도가 보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대회의 단체전 경기에서는 남고부경기에서 무명팀인 대

제2회 대한체육과학대학 총장기 전국남녀 고등학교 태권도대회

4.29-5.2, 국기원

'91년도에 창설, 올해 2회대회를 맞은 대한체육과학대학총장기 전국남녀 고교대회가 4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국기원에서 개최되었다.

개인전에는 남고부가 70개교에서 380명, 여고부가 43개교 154명 등 총 534명이 출전해 체



개회식 모습



우승기를 차지한 대전 대성고팀

전 대성고등학교가 1위를 차지하는 이변을 보였다. 또한 동성고가 2위, 3위는 경상공고, 서울체고가 차지했다.

지난해의 우승팀이었던 송림고를 비롯해 대전체고, 인천체고, 성동고 등은 입상권에서 모두 탈락하는 이변을 보였다.

여자부 단체전의 경우도 지난해 우승팀이었던 은광여고가 탈락하고 지난해 3위에 머물렀던 고양여중고가 우승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어 준우승은 광명여

상, 3위는 천안여고와 혜성여고가 차지했다.

개인전 경기의 체급별 우승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남고부)

핀급: 윤종일(풍생고)
플라이급: 고동완(전북체고)
밴텀급: 조정선(충북체고)
페더급: 박민섭(광주체고)
라이트급: 장용국(개곡고)
웰터급: 김동민(충북체고)
미들급: 박정태(경상공고)

헤비급: 강현구(리라공고)

(여고부)

핀급: 김진성(송곡고)
플라이급: 이순영(고양중고)
밴텀급: 원선진(수원 효원고)
페더급: 이정숙(천안여고)
라이트급: 조미례(리라공고)
웰터급: 임경화(배성여상)
미들급: 박은선(고양중고)
헤비급: 정명숙(혜성여고)

현장과 화제



- 대학태권도부 탐방 - 서강대 태권도 동아리
10여년전 태권도부 창설, 대학 태권도부 씨클 대항전서
신화남겨
- 광주지할시 한국체육관(박세영 관장)
광주대표로 우수도장상 수상
- 대전직할시 신탄진 새일고등학교 태권도부 창단
“창단 멤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의욕을 불태우는
태권도 부원들”
- 전라북도 전주 유아체육관(전철기 관장)
“태권도의 생활체육활성화 위해 새벽부터 열심히”
- 경상남도 충무 한려체육관(김정렬 관장)
두쌍의 쌍둥이형제 태권도 수련
- 경상북도 문경체육관(조용구 관장)
향토체육 발전의 숨은 공로자

10여년전 태권도부 창설, 대학 태권도부써클 대항전서 신화남겨

서강대 태권도 동아리



20여명의 재학생이 매일 오후 4시부터 태권도 수련

차분하면서도 자유스러운, 그러면서도 유니크한 분위기를 자아내게 하는 서강대.

대학 정문을 들어서면 우측에 자리한 첫번째 건물이 체육관이 다.

체육관 앞에 설치된 테니스코트에는 많은 학생들이 땀을 흘리며 테니스를 치고 있고 체육관 실내에 들어서자 그곳에는 배드민턴을 치는 학생들로 가득하다. 또한 탁구실에는 탁구를 치는 학생들로 가득하고 밀폐된 공간에서는 테니스 초보자들의

백보드 치기가 한창이다.

기초체력 훈련장에서는 여러 체육기구들을 사용해 땀을 흘리는 얼굴들이 눈에 들어온다.

체육관 내부를 한바퀴 둘러보며 지하1층으로 내려가면 체육관 관련 동아리들의 아지트가 나온다.

태권도부는 검도부와 함께 부실을 사용하고 있다.

검도복과 태권도복이 한쪽에 걸려 있고 부실에 놓여진 책상에서는 수업을 일찍 마친 학생들 몇명이 도서관 대신 이곳에서 책을 읽고 있다.

오후 4시부터 태권도 수련이 시작되는데 4시가 가까와지자 한두명씩 태권도부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태권도부는 20명정도.

주로 1학년생들이 대부분으로 13명, 2학년이 4명 3, 4학년 4명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한다. 여학생은 한명도 없다.

2년전, 90학년도 신입생 중에 전산과에 입학한 여학생 한명이 입회하여 태권도부 사상 처음으로 홍일점을 맞이하였다.

태권도부원들의 기쁨도 잠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그 여학생은 부원들의 기대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태권도부를 탈퇴했다.

“태권도를 처음으로 배우는 여학생이라 태권도가 힘들기도 했고 태권도 수련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술자리를 따라다니기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남자들이야 태권도부실에서 도복을 갈아입지만 혼자서 옷갈아 입고 운동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결국 몇달을 못뚫기고 중도하차 했다는 것.

서강대 태권도부는 매일 태권도를 수련한다. 보통 수업을 마치는 4시부터 시작해 한시간이



축제때의 태권도 시범모습

나 한시간 반 정도를 수련한다.

태권도 지도는 주로 고학년 중에서 단이 높은 학생이 맡아서 한다. 현재 서강대 태권도부 부장은 경제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정해욱 학생이 맡고 있다.

“학생들이 태권도를 배우는 것은 학문을 탐구하는 대학생활동 중에 동아리 활동을 통하여 체력을 연마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권도 수련을 통한 땀의 의미는 바로 생활의 활력을 제공하는 정신적인 가치이기도 합니다.”

태권도부 창설초기 대학생을 대항 대회 창설 및 1회 대회 우승

서강대 태권도부가 창설된 것은 80년대초, 당시 화공과에 재학중이던 3단의 김영수씨를 주축으로한 서너명의 태권도 유단자가 태권도부를 창설 부원모집

공고를 내면서 시작되었다.

“태권도부가 창설되던 해가 서강대 태권도부로서는 가장 전성기 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 옵니다.

그때 김영수 선배는 각 대학 태권도 동아리들의 친선 경기대회를 창설하면서 1회 대회를 서강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대학 태권도 씨를 대항 태권도대회는 이후 매년 개최되는 등 그 맥을 이어가면서 대학 태권도의 활성화와 태권도인들간의 친목을 다지는 행사가 되었 습니다.

1회 대회 때 우리 학교는 대회 우승을 차지할 정도로 우수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서강대 태권도부는 초창기 빛나는 실력 발휘로 타 대학을 깜짝 놀라게 했지만 이후 10여년간 계속된 이 대회에서 한번도 우승을 차지해본 적이



태권도부원들(아래 오른쪽이 정해욱부장)

없다.

서강대축제때 연무시범을 보이며 실력발휘

대학 태권도부는 태권도 수련 외에도 태권도 수련을 마치고 갖는 한잔의 술자리를 통해 우정을 다지고 선후배의 끈끈한 정을 키워간다.

또한 방학때 갖는 태권도부 수련회 또한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긴다.

2년마다 한번씩은 서강대 축제 때 태권도 연무시범을 보이기도 한다. 연무시범을 준비하면서 한두달 꼬박 연습에 매달리던 시절도 오래 남을 추억거리 중의 하나다.

“한번은 연무시범 중에 불을 통과해 발차기를 하는 시범이 있었습니다.

연습때도 잘했는데 시범을 보이던날 발차기를 하다가 넘어지는 바람에 머리에 불이 붙어 머리를 태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 선배는 머리가 자랄동안 계속 모자를 쓰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추억들 속에서 태권도 선후배는 끈끈한 정으로 뭉치게 된다.

“연말에 카니발을 할 때는 재학생들 보다 동문들이 더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느 동아리고 보통 졸업후에는 거의 선배들이 나오지 않는다. 바쁘기도 하고 멋진 후배들

과 자리를 같이 한다는 것이 썩스럽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개강, 종강 총회를 통해 선후배가 자리를 같이하고 땀 흘리며 함께 수련하던 선배들은 늘 가까이 후배들을 찾아 인사를 나누고 그들과 학창시절을 이야기하며 술값을 내주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신록이 우거진 초여름의 캠퍼스는 싱그러움만 하다.

「오늘은 잔디 광장에서 태권도 수련을 합시다.」는 태권도 부장의 말에 부원들이 잔디로 뛰어 나간다.

푸른 잔디위에서 흰도복을 입고 태권도를 수련하는 부원들의 젊음과 기상이 돋보인다. **이재민**

광주 대표로 우수도장상 수상

한국체육관(박세영관장)



국기에 대한 경례를 시작으로 태권도 수련에 들어간다.



태권도 수련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수련생들

혹자는 무등산을 어머니의 치마자락과 같다고도 노래했다. 무등산의 온화한 자태의 끄트머리에 자리잡고 있는 한국체육관. 우렁찬 기합소리와 함께 땀이

촉촉히 베인 도복을 입고 지도에 여념이 없는 박세영관장. 그는 『광주직할시 지역에 훌륭한 지도사범님들이 많이 계신데 뜻밖의 영광스러운 우수도장상을 받고 보니 더욱 분발하라는 체찍질로 알고 보다더 열심히 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보여주었다.

박관장이 태권도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 중학시절에 허약한 육체를 단련하기 위해서였는데 이후 지금까지 태권도복을 입고 살아가는 자랑스런 태권도인이 되었다.

그는 지도자의 길을 걷기 위해 체육관을 개설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있기 까지 쉽지 않은 날들도 많았지만 『1. 나를 위한다. 2. 관을 위한다. 3. 나라를 위한다.』라는 관훈을 새기며 언제나 지역사회 발전과 청소년 선도에 남달리 노력해왔다.

박관장은 현재 광주직할시 협회 경기 감독관으로서 경기력 향상과 태권도인들의 인화 단결에 한몫을 해내고 있다. **【특약】**

〈광주 윤용석 편집위원〉

“창단멤버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의욕을 불태우는 태권도부원들”

신탄진 새일고등학교 태권도부 창단



교장 : 안 형 근



지도교사 : 정 우 석



지도사범 : 이 명 식

대전직할시 대덕구 신탄진에 위치한 새일고등학교(학교법인 해동학원)가 지난해 500여명이 넘는 체육관 「대죽체육관」을 건립한데 이어 지난 4월 1일 태권도부를 창단해 태권도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평소 예의와 질서를 강조하며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상을 역설하시는 태권도 3단의 안형근 교장선생님과 “힘껏, 바르게, 쓸모있게” 생활하는 전인교육을 교육철학으로 삼고 팔순의 노구에도 정정하게 교육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이병무 이사장님의 특

별한 관심과 지원으로 그간 학교의 숙원이었던 운동부가 최초로 태권도로부터 발족을 보게 된 것이다.

이는 태권도가 모든 운동의 기본이 되며, 마음의 수양과 신체의 단련을 통한 심신수련과 자기방어에 목적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무예라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새일고등학교 태권도부는 이권형 주장을 비롯한 남·여 80여명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정규수업을 마친 후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씩 정우석, 이명식 선생님의 지도

로 태권도를 통한 “지, 덕, 체”를 연마하고 있는 것이다.

태권도부는 우리의 것을 찾고 익히고 새로운 것을 더 발전시킨다는 온고지신(溫故知新)을 좌우명으로 삼고 있다.

태권도부원들에게 태권도를 하면서 길러지는 운동정신은 친구들과 우애와 화합을 다지게 하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매사에 웃으면서 적극적으로 해낼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한다.

매일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며 운동에 임하는 태권도부원들의 모습속에서는 깊은 신뢰와 우정이 싹튼다.



신한진 새일고등학교 태권도부가 창단, 고등부 태권도계에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태권도부원들은 창단멤버라는 강한 자부심과 긍지로 모교의 전통을 태권도 정신으로 이어가겠다는 각오를 다진다.

그래서 이들 태권도 부원들의 자세는 더욱더 진지하기만 하다. 금년에는 내실을 기하면서 저변확대를 꾀하고 내년부터 본

격적으로 각종대회에 참가하여 우리들의 가슴에도 자랑스런 태극마크 한 번 달아 보자는 쾌기 넘치는 의욕으로 기음을 토하고 있어, 대표선수 새일인의 모습을 볼날도 이제 멀지 않았음을 예고하여 준다. **▶서문**

〈대전 오노균 편집위원〉

“태권도의 생활체육활성화 위해 새벽부터 열심히”

전주 우아체육관 (전 철 기 관장)



전라북도 심판원들과 함께(중앙)



전철기관장

우아 체육관은 1992년도 대한 태권도협회 우수도장 표창을 수상한 전주시 우아동에 위치한 체육관이다.

우아 체육관에 들어서면 40여 평의 실내공간에 녹색의 마루바

닥과 사면이 거울로 단장되어 한 눈에 깔끔하고 산뜻한 느낌을 준다.

전철기 관장은 1979년에 전라북도 경찰국 상무관에서 지도자 생활을 시작으로 1983년에 현재의 우아체육관을 개관한 이래 생활체육으로서의 태권도와 엘리트선수 육성에 이바지해 왔다. 특히 현 체육관의 위치가 APT단지인 까닭에 주민들의 운동공간이 부족함을 인식해 지역주민들의 스포츠 생활화를 위한 체육관 무료개방을 실시해 왔다.

또한 새벽에 성인남자들 특히 직장인들의 출근전을 이용한 운동의 생활화를 유도하였다.

주부들의 오전 여가시간을 이용한 운동습관을 유도하기 위해서 당시만 해도 전북지역에 널리 보급이 되지 않은 에어로빅을 무료로 보급을 시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주3회씩 성인을 대상으로 퇴근후 시간에 맞추어 동네무료 스포츠 교실을 열고 기초체력 운동과 스트레칭 체조를 시작해 태권도 동작 지도를 시도해 보기도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현재는 에어로빅만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전관장은 바람직한 지도자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해 늘 배우며 노력하고 있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지도자 교육은 물론 심판 경기지도자 생활체육교육 스포츠 맞사지구급법 체육시설 실무자 교육 등을 수료해 자칫 획일적이기 쉬운 태권도 교육에 접목해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 있다.

현재 우아체육관의 전임사범으로는 체육학 석사 출신의 친동생이 많고 있으며 지도사범은 해병대 출신의 이양렬사범이 많고 있다.

전관장은 전라북도 태권도협회 심판분과부위원장과 협회운영위원 도장관리 홍보이사 등을 거쳐 현재는 심판이사를 맡고 있다.

〈전북 이윤영 편집위원〉

두쌍의 쌍동이형제 태권도 수련

충무 한려체육관 (김정렬 관장)



태권도 가족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일호·이두호·장정민·장정호

경남 충무의 한려체육관에는 쌍동이 형제가 그것도 한쌍이 아닌 두쌍의 형제가 태권도를 수련하고 있어 태권도 가족의 인기를 끌고 있다.

선배쌍동이는 중학교 1년생으로 2품인 이일호·이두호, 후배 쌍동이는 국민학교 3년생으로 1품인 장정민·장정호

태권도를 수련하는 동안 선의 경쟁으로 기량을 향상시키고 있는 쌍동이 형제들은 각종 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한려체육관의 명예를 빛내고 있는 유망주들이다.

선배쌍동이인 이일호와 이두호는 국민학교 4학년때인 '89년도부터 각종 대회에 출전해 입

상하기 시작해 '90년 4월 제2회 충무 교육장기대회에서 형이 미니 핀급2위, 동생3위 '90년 11월 제1회 통영군수배대회에서 동생 핀급 1위 '91년 7월 제3회 충무 교육장기대회 형이 플라이급 1위, 동생3위 '91년 11월 제8회 충무협회장기대회와 12월 제2회 통영군수배대회에서 쌍동이 형제 모두 체급별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통영군수배에서 동생 두호는 최우수선수상의 영예까지 차지해, 각종 태권도대회에서 이들에 대한 화제와 기대로 가득하다.

한편 후배쌍동이인 장정민·장정호도 수련에 열중하면서 선배형들의 뒤를 잇겠다며 기량을 쌓고 있어 장래가 기대되고 있다.

한려체육관의 김정렬사범은 그동안 국가대표선수출신인 윤순철(상무)과 전국 규모 대회의 우승자로 지재기(동아대), 천일구(경상대)등을 키워낸 바 있는데 앞으로 쌍동이 형제들도 국가 대표로 키워보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특이문**

향토체육 발전의 숨은 공로자

문경체육관 (조용구 관장)



우수한 선수육성으로 대회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올리기도 한다.



조용구관장

1974년도에 영남에서 서울로 통하는 문경세계아래 태권도 체육관을 개관한 이래 20년 가까이 『오직 태권도가 좋아서, 철모르는 아이들이 좋아서』 외길인생을 걷고있는 조용구관장.

『성실하게 생활해서, 이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지도목표로 그동안 수 많은 제자를 배출해왔다.

현재 150여명의 수련생을 지

도하고 있음은 물론 레슬링, 유도장까지 개관하여, 전국규모대회에 출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지방체육발전에 헌신코져 어머니 에어로빅 교실까지 열어 생활체육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종합체육관의 시설규모속에서도 조관장은 직접 땀흘리며 수련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조관장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며, 새벽5시만 되면 기상하여, 1시간의 조깅으로 체력을 단련하면서, 하루의 혼련일과를 구상 한다.

이러 각 종목별로 선수반 새벽반을 지도하고, 오전 10시 부터는 어머니 태권도 교실과 에어로빅으로 오전시간을 바쁘게 보내고 오후 2시 부터는 태권도

지도로 구슬땀을 흘리다보면, 어느새 밤 10시가 가까워 진다고 한다.

『내힘이 다할때까지 언제나 도복을 입고 지도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조관장은 『정신력이 약하다못해 땅가져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청소년을 올바르게 잡아주고, 능능한 태권도 유단자로 키워서, 부모의 고마움을 알고, 무엇이트든 열심히 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제자를 키울때』 태권도 지도자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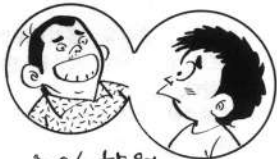
한편 조관장은 각종 대회가 있을 때마다 선수를 데리고 출전, 좋은 성적을 거두고있는데 이는 승부근성이 뛰어난 우수한 선수 발굴과 지도에도 힘을 쏟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젠 제자들이 미국 스페인 등지에서 해외 사범으로 활약하고 있고, 경찰관, 교직, 사업 등 각분야에 진출해있고 8명의 사범이 체육관을 개관하여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길을 걷고있다. 체육관 사무실에는 각종 상장, 표창, 경찰국장 감사장, 체육부장관표창, 대한 태권도협회 우수도장상 등으로 가득해 그가 사명감과 신념을 가진 체육인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슬하의 두아들은 3품, 1급의 태권도 수련생으로 『장차 나도 크면 아빠같이 태권도 사범이 되겠다』고 한다. **한지**

〈경북 신용우 편집위원〉

태권가족



이향원





행사 기록

사 범

제71기 태권도 지도자교육 (5.11-20, 지도자연수원)

▲ 표창자 명단

조관현 신용구 김옥수 김용근
조 청 박진형 이석환 고영남
한들네 이근우

▲ 서울

김정일 김승진 이승복 박민원
정희진 김진완 이인용 이승재
조 청 손지훈 유정상 유윤암
우호진 조관현 김용진 최성주
최창한 박만동 이병호 최승현
강오성 한정관 이필규 박찬동
박수현 김중대 김상륜 곽태민
황찬우 최대엽 이근우 조귀현
윤창준 조재준 이정복 장봉재
김기철 박해광 오일근 정 석
박인환 양한호 이건창 모경진
김광범 한승엽 조희수 양용석
류재범 김경환 마병배 김시한
오경란 (이상 53명)

▲ 부산

김무철 최승완 박종일 노광수

이성준 이현식 강창모 이형두
심원정 백순흠 조영래 임영도
박재완 배철호 정강룡 한철수
박덕곤 이승엽 김태복 백구인
(이상 20명)

▲ 대구

임종락 이증환 이상환 황재원
김수형 권구창 김성호 안영철
(이상 8명)

▲ 인천

박종오 고만희 유석호 임태용
연경민 장병열 지윤철 임남순
(이상 8명)

▲ 광주

김길원 배경민 김지태 송 권
(이상 4명)

▲ 대전

오정세 (이상 1명)

▲ 경기

이춘우 박승엽 김광업 유재훈
이화진 심인보 함형관 김재규
이홍석 최용한 한근수 성기연
신연광 전호석 이석환 노영식
김찬겸 황재구 (이상 18명)

▲ 강원

유영식 박재양 최병만 전성재
최화규 전영만 (이상 6명)

▲ 충남

김영복 김기찬 이근우 소병욱
(이상 4명)

▲ 충북

방효용 신용구 김찬희 박성통
권영호 박상면 한들네(이상
명)

▲ 경남

박성진 이병준 김경모 김준호
김인수 김상곤 조문열 정희철
김성삼 오진석 정창욱 오용석
이주연 (이상 14명)

▲ 경북

김옥수 이창재 윤종태 박규태
이승기 김재일 최일환 우삼영
이재근 차훈식 김대유 이호현
신용우 (이상 13명)

▲ 전남

박종주 양동국 이재준 안효관
최낙문 김천기 강재원 강호일
(이상 8명)

▲ 전북

최삼봉 홍대환 양동원 차상기
이세동 하복래 박철우 이 훈
(이상 8명)

▲ 제주

고영남 윤종관 (이상 2명)

▲ 국태부

김용근 구자운 유영준 박환균
김형환 박진영 (이상 6명)

3위: 이승희(대전체고)
홍종우(충북체고)

3위: 김현일(장안중)
김형섭(경북영천중)

국내대회

'92년도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4.6~10, 올림픽 제2체육관)

(고등부)

▲ 핀급

- 1위: 소병관(동성고)
- 2위: 석운용(개곡고)
- 3위: 구정본(송곡고)
김선용(태성고)

▲ 플라이급

- 1위: 김태훈(대전대성고)
- 2위: 유영택(대전체고)
- 3위: 윤진철(리라공고)
최상동(리라공고)

▲ 밴텀급

- 1위: 박정우(서울체고)
- 2위: 유용열(풍생고)
- 3위: 장영근(송곡고)
김대성(광양고)

▲ 페더급

- 1위: 박민섭(광주체고)
- 2위: 최성훈(동천고)
- 3위: 최봉인(인천체고)
김민우(부산체고)

▲ 라이트급

- 1위: 김경훈(동성고)
- 2위: 이상훈(부산체고)

▲ 웰터급

- 1위: 심기선(대전체고)
- 2위: 이진우(인천선인고)
- 3위: 박동철(동성고)
정해성(정명고)

▲ 미들급

- 1위: 신원조(부산체고)
- 2위: 정용국(리라공고)
- 3위: 장우화(충북체고)
조한호(천안중앙고)

▲ 헤비급

- 1위: 심재섭(동성고)
- 2위: 김상국(리라공고)
- 3위: 박을용(광주체고)
이정훈(광성고)

'92년도 전국종별 선수권대회(4.14~16, 국기원)

(중등부)

▲ 핀급

- 1위: 류인평(청주중)
- 2위: 민병석(단대부중)
- 3위: 이경석(복성중)
양영희(한영중)

▲ 플라이급

- 1위: 홍기상(공릉중)
- 2위: 박명훈(군산중앙중)
- 3위: 최진성(광주복성중)
진형준(구월중)

▲ 밴텀급

- 1위: 정민철(부천동중)
- 2위: 한상윤(단대부중)

▲ 페더급

- 1위: 홍법석(부천동중)
- 2위: 김윤식(동성중)
- 3위: 양대영(오주중)
신재훈(한영중)

▲ 라이트급

- 1위: 안정일(한영중)
- 2위: 문정훈(반송중)
- 3위: 김상태(풍생중)
이종호(철원중)

▲ L-웰터급

- 1위: 박기호(영남중)
- 2위: 심동선(부흥중)
- 3위: 김현수(광주상무중)
강민강(영남중)

▲ 웰터급

- 1위: 김선진(단대부중)
- 2위: 유병대(대신중)
- 3위: 문성일(청주중)
한 훈(구월중)

▲ L-미들급

- 1위: 오재화(합열중)
- 2위: 김사성(용곡중)
- 3위: 정병기(부천동중)
손주형(부흥중)

▲ 미들급

- 1위: 이효득(영북중)
- 2위: 유상영(자양중)
- 3위: 국춘근(완산중)
정영철(태성중)

▲ L-헤비급

- 1위: 염 균(용봉중)
- 2위: 김상태(예산중)

3위 : 김경진(장안중)
남규영(반송중)

▲ 해비급

1위 : 하세웅(부천동중)
2위 : 이영우(산곡남중)
3위 : 김순규(강화중)
송용섭(방어진중)

(일반부)

▲ 핀급

1위 : 이만식(현대정공)
2위 : 최홍현(부산체육선교신
학교)
3위 : 이정희(금복주)
김대근(지하철공사)

▲ 플라이급

1위 : 안대섭(인천전문대)
2위 : 조성범(금복주)
3위 : 국정훈(현대정공)
김대실(팔봉전산원)

▲ 밴텀급

1위 : 박만석(인천전문대)
2위 : 김재철(인천전문대)
3위 : 윤종철(팔봉전산원)
전기인(영천체육관)

▲ 페더급

1위 : 방영욱(팔봉전산원)
2위 : 박승기(인천전문대)
3위 : 박순관(인천전문대)
최승호(인천전문대)

▲ 라이트급

1위 : 서재춘(팔봉전산원)
2위 : 최창원(보령군청)
3위 : 김경일(체육선교신학교)
오원호(체육선교신학교)

▲ 웰터급

1위 : 김영남(체육선교신학교)
2위 : 황준익(대한체육과학
학)
3위 : 윤정민(효성체육관)
이재구(체육선교신학교)

▲ 미들급

1위 : 류재민(체육선교신학교)
2위 : 유명원(보령군청)
3위 : 장재철(부산체육선교신
학교)
김동규(한국체육관)

▲ 해비급

1위 : 유대환(산돌체육관)
2위 : 박창수(맹호체육관)
3위 : 문경구(부산체육선교신
학교)
정경호(상무체육관)

**제19회 전국대학 개인 태권
도 대회 겸 제3회 세계대학
선수권대회 한국 대표 선수
선발대회
(4.23~25, 국기원)**

(남대부)

▲ 핀급

1위 : 김정오(경원대)
2위 : 최용훈(동아대)
3위 : 이대훈(대한체육과학
학)

▲ 플라이급

1위 : 맹성재(경희대)
2위 : 서보훈(한체대)

3위 : 이경호(경희대)
박재성(한체대)

▲ 밴텀급

1위 : 김병욱(한체대)
2위 : 김현용(경희대)
3위 : 박병익(경희대)
조성호(계명대)

▲ 페더급

1위 : 안홍엽(대한체육과학
학)
2위 : 이안호(경희대)
3위 : 신보현(청주대)
강성봉(동아대)

▲ 라이트급

1위 : 박세진(경희대)
2위 : 양재훈(한체대)
3위 : 곽택용(한체대)
정을진(경희대)

▲ 웰터급

1위 : 김광수(한체대)
2위 : 김길훈(경원대)
3위 : 임영호(경희대)
임상도(경상대)

▲ 미들급

1위 : 박종범(한체대)
2위 : 이현석(동아대)
3위 : 임영희(청주대)
최승길(대한체육과학
학)

▲ 해비급

1위 : 강승수(한체대)
2위 : 최종국(동아대)
3위 : 주의홍(경희대)
서정규(경원대)

(여대부)

▲ 핀급

- 1위 : 유수진(경희대)
- 2위 : 강선경(상명여대)
- 3위 : 이승희(동명전문대)

▲ 플라이급

- 1위 : 장이숙(상명여대)
- 2위 : 박은미(성신여대)
- 3위 : 배종현(인천전문대)

▲ 밴텀급

- 1위 : 이승민(경희대)
- 2위 : 김은숙(대한체육과학대학)
- 3위 : 황태경(동명전문대)
박영신(상명여대)

▲ 페디급

- 1위 : 김성숙(성신여대)
- 2위 : 김경애(대한체육과학대학)
- 3위 : 윤 희(한체대)
권혁실(대한체육과학대학)

▲ 라이트급

- 1위 : 윤명숙(상명여대)
- 2위 : 이현화(경희대)
- 3위 : 진혜윤(경희대)
최동현(중부사회산업대학)

▲ 웰터급

- 1위 : 조향미(경희대)
- 2위 : 김미영(대한체육과학대학)
- 3위 : 이은주(한체대)
박선미(상명여대)

▲ 미들급

1위 : 이성미(상명여대)

2위 : 이용화(대한체육과학대학)

3위 : 이은주(성신여대)
김은주(한체대)

▲ 헤비급

1위 : 윤현정(대한체육과학대학)

2위 : 최은화(인천전문대)

3위 : 박은주(상명여대)
백현정(중부사회산업대학)

○ 최우수선수상 :
박종범(한체대)
이성미(상명여대)

○ 우수선수상 :
박세진(경희대)
이현화(경희대)

○ 장 려 상 :
김철오(진주전대)
최동현(중부사회산업대학)

○ 감 투 상 :
김정오(경원대)
윤현정(대한체육과학대학)

○ 지 도 상 :
문원재(한체대)
김준태(상명여대)

**제2회 대한체육과학대학교
총장기 전국 남·녀 고교대
회**

(4.29~5.2, 국기원)

(남자부)

▲ 핀급

- 1위 : 윤종일(풍생고)
- 2위 : 석운용(개금고)
- 3위 : 김대훈(동천고)
지진성(서울체고)

▲ 플라이급

- 1위 : 고동완(전북체고)
- 2위 : 김남우(송곡고)
- 3위 : 강병선(개금고)
장경석(판악고)

▲ 밴텀급

- 1위 : 조정선(충북체고)
- 2위 : 김형원(선인고)
- 3위 : 윤신철(리라공고)
장일태(대전체고)

▲ 페디급

- 1위 : 박민섭(광주체고)
- 2위 : 장덕진(리라공고)
- 3위 : 정기원(선인고)
이동규(대전체고)

▲ 라이트급

- 1위 : 장용국(개금고)
- 2위 : 양홍석(송곡고)
- 3위 : 김실용(영북종고)
송제현(대성고)

▲ 웰터급

- 1위 : 김동민(충북체고)
- 2위 : 김태완(천안중앙고)
- 3위 : 신승일(군산중앙고)
이진우(선인고)

▲ 미들급

- 1위 : 박정태(경상공고)
- 2위 : 하태진(풍생고)
- 3위 : 정용국(리라공고)
양성오(성동고)

▲ 해비급

- 1위: 강한구(리라공고)
- 2위: 문권수(풍생고)
- 3위: 손용구(대성고)
- 심재섭(동성고)

(여자부)**▲ 핀급**

- 1위: 김진성(송곡고)
- 2위: 이신영(인천체고)
- 3위: 강문정(고양종고)
- 문경애(시온고)

▲ 플라이급

- 1위: 이순영(고양종고)
- 2위: 유수미(리라종고)
- 3위: 서미라(인천체고)
- 김순동(고양여종고)

▲ 밴텀급

- 1위: 원선진(효원고)
- 2위: 전난희(태원고)
- 3위: 이경민(시온고)
- 이은양(천안여상)

▲ 페더급

- 1위: 이정숙(천안여고)
- 2위: 최선미(배성여상)
- 3위: 김미영(주덕고)
- 차춘희(고양여종고)

▲ 라이트급

- 1위: 조미혜(리라공고)
- 2위: 김옥남(배성여상)
- 3위: 채수진(혜성여고)
- 강광숙(효원고)

▲ 웰터급

- 1위: 임경화(배성여상)
- 2위: 신은정(리라공고)

- 3위: 정연옥(상주여고)
- 정미화(김제북고)

▲ 미들급

- 1위: 박은선(고양여상)
- 2위: 박상희(리라공고)
- 3위: 김미경(장원여고)
- 김영희(덕소고)

▲ 해비급

- 1위: 정명숙(혜성여고)
- 2위: 라명숙(배성여상)
- 3위: 박정숙(김제북고)
- 이선민(문산종고)

(남자단체전)**▲ 통합플라이급**

- 1위: 김태훈(대성고)
- 2위: 강창석(동성고)
- 3위: 최재훈(경상공고)
- 정재훈(서울체고)

▲ 통합페더급

- 1위: 전명기(대성고)
- 2위: 김동현(동성고)
- 3위: 양동훈(경상공고)
- 김봉석(서울체고)

▲ 통합웰터급

- 1위: 송재현(대성고)
- 2위: 천창영(동성고)
- 3위: 김진(경상공고)
- 정재균(서울체고)

▲ 통합해비급

- 1위: 손용구(대성고)
- 2위: 심재섭(동성고)
- 3위: 박정태(경상공고)
- 이동완(서울체고)

▲ 무제한급

- 1위: 제환용(대성고)
- 2위: 김경훈(동성고)
- 3위: 김병진(경상공고)
- 박정우(서울체고)

(여자단체전)**▲ 통합플라이급**

- 1위: 김선양(고양여종고)
- 2위: 김지향(광명여상)
- 3위: 양소희(천안여고)
- 이경진(혜성여고)

▲ 통합페더급

- 1위: 차춘희(고양여종고)
- 2위: 진용순(광명여상)
- 3위: 이정숙(천안여고)
- 김은희(혜성여고)

▲ 통합웰터급

- 1위: 김은이(고양여종고)
- 2위: 홍지선(광명여상)
- 3위: 김수정(천안여고)
- 채수정(혜성여고)

▲ 통합해비급

- 1위: 고내인(고양여종고)
- 2위: 안영애(광명여상)
- 3위: 김송경(천안여고)
- 정명숙(혜성여고)

▲ 무제한급

- 1위: 박은선(고양여종고)
- 2위: 조상숙(광명여상)
- 3위: 전영식(천안여고)
- 오미화(혜성여고)

**제13회 태권왕 겨루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대회
(5.9~10, 한양대 체육관)**

(남자부)

▲ 핀급

- 1위: 정두처(서룡국)
- 2위: 노판국(성남동국)
- 3위: 전상인(석수국)
박대회(성남북국)

▲ 플라이급

- 1위: 최성호(은천국)
- 2위: 서규남(서룡국)
- 3위: 김성빈(상원국)
김상규(장성국)

▲ 밴텀급

- 1위: 장재성(마장국)
- 2위: 이주봉
- 3위: 최인철(서귀중앙국)
이창훈(서귀중앙국)

▲ 페더급

- 1위: 진홍근(용인국)
- 2위: 국신철(금광국)
- 3위: 최한석(강덕국)
유효주(상원국)

▲ 라이트급

- 1위: 남연식(서룡국)
- 2위: 이택근(부원국)
- 3위: 이은석(강덕국)
신영재(서원국)

▲ L-웰터급

- 1위: 이재혁(마장국)
- 2위: 김동문(군자국)
- 3위: 왕경열(광희국)
박종화(쌍문국)

▲ 웰터급

- 1위: 이창희(신시흥국)
- 2위: 정기환(신시흥국)
- 3위: 지영진(마장국)

양회동(고강국)

▲ L-미들급

- 1위: 이덕휘(성주국)
- 2위: 김정규(성남동국)
- 3위: 이승환(광희국)
신성환(청목국)

▲ 미들급

- 1위: 한전민(은천국)
- 2위: 서경환(천호국)
- 3위: 임휴영(양목국)
양석규(용인국)

▲ L-헤비급

- 1위: 조동국(용인국)
- 2위: 홍춘식(오정국)
- 3위: 조원형(신일국)
김한국(광희국)

▲ 헤비급

- 1위: 박봉희(송광국)
- 2위: 이재욱(충무국)
- 3위: 정광열(서원국)
정세광(광희국)

(여자부)

▲ 핀급

- 1위: 조선미(성남동국)
- 2위: 윤영미(부양국)
- 3위: 안정아(태평국)
전현숙(충무국)

▲ 플라이급

- 1위: 류선미(염창국)
- 2위: 이진영(은천국)
- 3위: 김경희(쌍문국)
안주미(예산중앙국)

▲ 밴텀급

- 1위: 윤성희(은천국)

2위: 정필교(용인국)

3위: 전국진(정목국)
이현숙(석수국)

▲ 페더급

- 1위: 김유미(강덕국)
- 2위: 이세경(예산중앙국)
- 3위: 박효정(석수국)

▲ 라이트급

- 1위: 홍영재(탑동국)
- 2위: 김지연(도신국)
- 3위: 우주연(용인국)
황주연(강덕국)

▲ L-웰터급

- 1위: 정효진(용인국)
- 2위: 박연우(금광국)
- 3위: 맹수연(강덕국)

▲ 웰터급

- 1위: 김지우(강덕국)
- 2위: 서진(은천국)
- 3위: 안지현(우산국)
김혜영(금광국)

▲ L-미들급

- 1위: 박지영(성남제2국)
- 2위: 김유정(강신국)
- 3위: 이상미(봉천국)
전국희(정목국)

▲ 미들급

- 1위: 이주영(석수국)
- 2위: 전슬기(강신국)
- 3위: 최정원(우산국)
최현정(강덕국)

▲ L-헤비급

- 1위: 오정희(쌍문국)
- 2위: 신정선(소래국)
- 3위: 유진아(석수국)

천현진(우산국)

▲ 해비급

- 1위: 이윤진(정목국)
- 2위: 남보라(석수국)
- 3위: 이성민(금천국)
김지연(오정국)

전국여자개인 태권도 대회
(5.13~14, 국기원)

▲ 편급

- 1위: 유수진(경희대)
- 2위: 최영아(자양중)
- 3위: 홍세라(광명상고)
김희화(체육선교신학교)

▲ 플라이급

- 1위: 천성희(충북체고)
- 2위: 박은미(성신여대)
- 3위: 김지향(광명상고)
최한솔(경성여고)

▲ 밴텀급

- 1위: 이화진(경희대)
- 2위: 위명희(인천체고)
- 3위: 김순동(고양중고)
최선남(은광여고)

▲ 페더급

- 1위: 신동선(리라공고)
- 2위: 이승민(경희대)
- 3위: 이지은(리라공고)
김성숙(성신여대)

▲ 라이트급

- 1위: 김옥남(배성여상)
- 2위: 이현화(경희대)
- 3위: 김은이(고양여중고)
서연화(성신여대)

▲ 웰터급

- 1위: 조향미(경희대)
- 2위: 백정자(동명전문대)
- 3위: 이영미(성신여대)
신은정(리라공고)

▲ 미들급

- 1위: 이은주(성신여대)
- 2위: 장희진(시온고)
- 3위: 박은숙(배성여상)
박상희(리라공고)

▲ 해비급

- 1위: 백영미(경희대)
- 2위: 장 철(경희대)
- 3위: 조원경(은광여고)
신혜진(인천체고)

제19회 한국 중·고등학교
태권도 연맹 회장기 타기 대
회
(5.25~29, 잠실학생체육관)

(남고부)

▲ 편급

- 1위: 석운용(개금고)
- 2위: 윤종일(풍생고)
- 3위: 소병관(동성고)
임진표(송곡고)

▲ 플라이급

- 1위: 김남우(송곡고)
- 2위: 박명환(풍생고)
- 3위: 이승일(단대부속고)
고광욱(정원고)

▲ 밴텀급

- 1위: 김형원(선인고)
- 2위: 윤병관(인천광성고)

- 3위: 송운기(광주고려고)
김대성(광양고)

▲ 페더급

- 1위: 정기원(선인고)
- 2위: 유용진(정명고)
- 3위: 김현주(금정고)
조국환(개금고)

▲ 라이트급

- 1위: 박승현(광주체육고)
- 2위: 이승희(대전체고)
- 3위: 장용국(개금고)
마상배(성동고)

▲ 웰터급

- 1위: 엄태호(송곡고)
- 2위: 이정진(덕소고)
- 3위: 송민(리라공고)
박동철(동성고)

▲ 미들급

- 1위: 박정태(경상공고)
- 2위: 김억조(정명고)
- 3위: 정우용(강화고)
김용국(대전체고)

▲ 해비급

- 1위: 심계섭(동성고)
- 2위: 손용구(대전대성고)
- 3위: 김기주(단대부속고)
문권주(풍생고)

(여고부)

▲ 편급

- 1위: 김진성(송곡고)
- 2위: 양소희(천안여고)
- 3위: 이효선(은광여고)
이인정(공향고)

▲ 플라이급

- 1위: 김지향(광명상고)

- 2위 : 정미경(은광여고)
- 3위 : 서동미(천안여상)
- 유수미(리라공고)

▲ 밴텀급

- 1위 : 원선진(효원고)
- 2위 : 진용순(광명상고)
- 3위 : 국지은(덕소고)
- 함진희(리라공고)

▲ 페더급

- 1위 : 신동선(리라공고)
- 2위 : 이지은(리라공고)
- 3위 : 권미영(대구장원여상)
- 박경숙(은광여고)

▲ 라이트급

- 1위 : 김옥남(배성여상)
- 2위 : 강귀정(문성여상)
- 3위 : 최경신(덕소고)
- 채수진(혜성여고)

▲ 웰터급

- 1위 : 정윤경(송곡고)
- 2위 : 신은정(리라공고)
- 3위 : 김수경(천안여고)
- 유은진(문산중고)

▲ 미들급

- 1위 : 박상희(리라공고)
- 2위 : 박은숙(배성여상)
- 3위 : 박은선(고양여고)
- 송지수(인천체고)

▲ 헤비급

- 1위 : 정명숙(혜성여고)
- 2위 : 박정숙(김제북고)
- 3위 : 라명숙(배성여상)

(남중부)

▲ 핀급

- 1위 : 신희중(구월중)

- 2위 : 김남규(덕원중)
- 3위 : 전승환(광주체중)
- 류인평(청주중)

▲ 플라이급

- 1위 : 홍일화(용곡중)
- 2위 : 구지형(청주중)
- 3위 : 조장훈(부천동중)
- 박희강(풍생중)

▲ 밴텀급

- 1위 : 김창식(풍생중)
- 2위 : 이승재(동성중)
- 3위 : 김형구(청주중)
- 문형효(완산중)

▲ 페더급

- 1위 : 김향수(청주중)
- 2위 : 최윤섭(영남중)
- 3위 : 박철강(단대부중)
- 김지욱(경수중)

▲ 라이트급

- 1위 : 정철근(영남중)
- 2위 : 차시우(대전오정중)
- 3위 : 장원모(항도중)
- 안정일(한영중)

▲ L·웰터급

- 1위 : 김상혁(경수중)
- 2위 : 안우용(여수중)
- 3위 : 이정태(청주중)
- 박상규(구월중)

▲ 웰터급

- 1위 : 김기철(부흥중)
- 2위 : 한 훈(구월중)
- 3위 : 박태성(한영중)
- 유병대(대전대신중)

▲ L·미들급

- 1위 : 최성준(영남중)

- 2위 : 곽영진(천안북중)
- 3위 : 윤귀상(공릉중)
- 김선일(풍생중)

▲ 미들급

- 1위 : 국춘근(완산중)
- 2위 : 한상범(한영중)
- 3위 : 김형호(청주중)
- 진현민(문일중)

▲ L·헤비급

- 1위 : 최환서(용곡중)
- 2위 : 김홍범(경수중)
- 3위 : 이규범(여수중)
- 서현석(구월중)

▲ 헤비급

- 1위 : 임병문(경수중)
- 2위 : 하세웅(부천동중)
- 3위 : 오정현(자양중)
- 민재호(구월중)

(여중부)

▲ 핀급

- 1위 : 정재은(강남여중)
- 2위 : 장현미(동인천여중)
- 3위 : 황지현(인천만수여중)
- 전성아(제천여중)

▲ 플라이급

- 1위 : 채혜경(영북중)
- 2위 : 박미연(대원여중)
- 3위 : 김순기(제천의림여중)
- 이승의(용곡중)

▲ 밴텀급

- 1위 : 최영아(자양중)
- 2위 : 최윤희(문창여중)
- 3위 : 오미니(용곡중)
- 김수현(홍덕중)

▲ 페더급

1위 : 이은옥(천안동여중)

2위 : 장정은(고려중)

3위 : 손영심(만수여중)

김은미(대원여중)

▲ 라이트급

1위 : 강소영(만수여중)

2위 : 정현주(전동중)

3위 : 조미라(철산여중)

김희진(자양중)

▲ L·웰터급

1위 : 황유지(자양중)

2위 : 김연주(만수여중)

3위 : 윤진주(가정여중)

이정숙(대원여중)

▲ 웰터급

1위 : 강해은(용곡중)

2위 : 김혜리(부산서여중)

3위 : 라효심(동인천여중)

박선희(대원여중)

▲ L·미들급

1위 : 한은진(광능중)

2위 : 이현희(대원여중)

3위 : 신현순(자양중)

박선정(인천가좌여중)

▲ 미들급

1위 : 김명순(동인천여중)

2위 : 주지혜(인천안수여중)

3위 : 이소현(서울사대부속여

중)

▲ L·헤비급

1위 : 최민정(대원여중)

2위 : 강혜진(만수여중)

3위 : 최은정(부천동여중)

최화수(동인천여중)

▲ 헤비급

1위 : 서정화(동인천여중)

2위 : 박효숙(대원여중)

(단체상)

▲ 남고부

우승 : 송곡고

준우승 : 선인고

3위 : 동성고

감투상 : 개금고

장려상 : 부산기공

최우수선수상 : 김남우(송곡고)

지도자상 : 이경식(송곡고)

▲ 여고부

우승 : 리라공고

준우승 : 배성여상

3위 : 광명상고

감투상 : 혜성여고

장려상 : 김제북고

최우수선수상 : 신동선(리라공고)

지도자상 : 박영수(리라공고)

▲ 남중부

우승 : 경수중

준우승 : 영남중

3위 : 용곡중

감투상 : 청주중

장려상 : 부흥중

최우수선수상 : 김상혁(경수중)

지도자상 : 임순길(경수중)

▲ 여중부

우승 : 동인천여중

준우승 : 자양중

3위 : 대원여중

감투상 : 만수여중

최우수선수상 : 서정화(동인천여중)

지도자상 : 이운일(동인천여중)

제9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전국 체육고등학교 체육대회 (5.27~29, 충북체고)

▲ 핀급

1위 : 박종천(충북체고)

2위 : 박종중(대전체고)

3위 : 강상희(경북체고)

지진성(서울체고)

▲ 플라이급

1위 : 유영택(대전체고)

2위 : 서동규(충북체고)

3위 : 김규환(부산체고)

고동완(전북체고)

▲ 밴텀급

1위 : 이동규(대전체고)

2위 : 최정훈(충북체고)

3위 : 이남규(전북체고)

박광현(부산체고)

▲ 페더급

1위 : 민경환(충북체고)

2위 : 박민섭(광주체고)

3위 : 정상우(경남체고)

김민우(부산체고)

▲ 라이트급

1위 : 이상훈(부산체고)

2위 : 홍종우(충북체고)

3위 : 차주환(경남체고)

신진구(광주체고)

▲ 웰터급

1위 : 김동민(부산체고)

- 2위 : 승진식(경남체고)
- 3위 : 박신준(부산체고)
- 박영태(경북체고)

▲ 미들급

- 1위 : 이동완(서울체고)
- 2위 : 신원조(부산체고)
- 3위 : 송민호(전북체고)
- 박은철(경남체고)

▲ 해비급

- 1위 : 장우화(충북체고)
- 2위 : 모종준(부산체고)
- 3위 : 박대준(대전체고)
- 차상명(충남체고)

▲ 단체상

- 1위 : 충북체고(금4, 은3)
- 2위 : 부산체고(금1, 은2, 동4)
- 3위 : 대전체고(금2, 은1, 동1)

**제21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6.13~15, 대구체육관)**

▲ 핀급

- 1위 : 유인평(충북청주중)
- 2위 : 김진성(경기태성중)
- 3위 : 조재관(광주문성중)
- 황용길(제주제주중)

▲ 플라이급

- 1위 : 박희강(경기풍생중)
- 2위 : 구지형(충북청주중)
- 3위 : 홍일화(서울용곡중)
- 김정태(광주체고)

▲ 밴텀급

- 1위 : 김기성(부산재송중)
- 2위 : 김창식(경기풍생중)

- 3위 : 김보환(인천구월중)
- 김형구(충북청주중)

▲ 페더급

- 1위 : 최윤섭(부산영남중)
- 2위 : 김윤식(서울동성중)
- 3위 : 신용우(전북군산중양중)
- 김향수(충북청주중)

▲ 라이트급

- 1위 : 김재진(경기부천동중)
- 2위 : 정철근(부산영남중)
- 3위 : 차시우(대전오정중)
- 박상석(광주체고)

▲ L·웰터급

- 1위 : 김선진(서울단대부중)
- 2위 : 양재룡(전남승주중)
- 3위 : 유병대(대전대신중)
- 이정태(충북청주중)

▲ 웰터급

- 1위 : 유 권(광주복성중)
- 2위 : 김형진(인천구월중)
- 3위 : 박동현(서울문일중)
- 육근영(전북군산중양중)

▲ L·미들급

- 1위 : 광영진(충남천안북중)
- 2위 : 김형호(충북청주중)
- 3위 : 이재성(인천구월중)
- 김태용(부산재송중)

▲ 미들급

- 1위 : 국춘근(전북전주완산중)
- 2위 : 한상협(서울한영중)
- 3위 : 최성준(부산영남중)
- 임현철(전남유달중)

▲ L·해비급

- 1위 : 최환서(서울용곡중)
- 2위 : 김형종(제주중문중)

- 3위 : 이규림(전남여수중)
- 김순규(경기강화중)

▲ 해비급

- 1위 : 박창건(부산개성중)
- 2위 : 민재호(인천구월중)
- 3위 : 임병문(서울경수중)
- 송동근(대구칠곡중)

**제27회 대통령기 전국단체
대항대회 (6.19~22, 제주한
라체육관)**

(고등부)

▲ 핀급

- 1위 : 윤종일(풍생고)
- 2위 : 석운용(개금고)
- 3위 : 정준호(광양고)
- 이성민(광악고)

▲ 플라이급

- 1위 : 김남우(송곡고)
- 2위 : 유영택(대전체고)
- 3위 : 고헌옥(정원고)

▲ 밴텀급

- 1위 : 이동규(대전체고)
- 2위 : 조진호(여수고)
- 3위 : 김민주(관악고)
- 김태훈(리라공고)

▲ 페더급

- 1위 : 김봉석(서울체고)
- 2위 : 장덕진(리라공고)
- 3위 : 전병기(대성고)
- 이동주(풍생고)

▲ 라이트급

- 1위 : 이승희(대전체고)
- 2위 : 최영준(광성고)

3위 : 현정훈(제일고)
임재근(숭실고)

▲ 웰터급

1위 : 송 민(리라공고)
2위 : 조동진(군산중앙고)
3위 : 최병익(고려고)
문광선(광성고)

▲ 미들급

1위 : 이동완(서울체고)
2위 : 빙원철(여수고)
3위 : 정재광(시온고)
정우용(강화고)

▲ 해비급

1위 : 손용구(대성고)
2위 : 김길곤(리라공고)
3위 : 정준호(덕소고)
하중선(국제고)

(대학부)

▲ 핀급

1위 : 진승태(한체대)
2위 : 조재성(경희대)
3위 : 김정오(경원대)
전일남(조선대)

▲ 플라이급

1위 : 박재성(한체대)
2위 : 지재기(동아대)
3위 : 이무현(관동대)
김종운(경희대)

▲ 밴텀급

1위 : 박재석(관동대)
2위 : 조성호(계명대)
3위 : 이지철(대한체육과학대)
박영민(동의대)

▲ 페더급

1위 : 이안호(경희대)

2위 : 신보현(청주대)
3위 : 강재구(계명대)
안홍엽(대한체육과학대)

▲ 라이트급

1위 : 정광채(한체대)
2위 : 박세진(경희대)
3위 : 서승민(인천전문대)
박원우(조선대)

▲ 웰터급

1위 : 장종오(대한체육과학대)
2위 : 김태수(경원대)
3위 : 최기선(관동대)
김광수(한체대)

▲ 미들급

1위 : 김정규(경희대)
2위 : 강동국(동아대)
3위 : 김기남(경원대)
이철우(관동대)

▲ 해비급

1위 : 김형태(조선대)
2위 : 안성주(충남대)
3위 : 김봉근(경희대)
김경진(군산대)

(일반부)

▲ 핀급

1위 : 서재욱(강원도협회)
2위 : 정영길(대덕군청)
3위 : 강철우(상무)
김태실(팔봉전산원)

▲ 플라이급

1위 : 김철호(현대자동차)
2위 : 배상철(지하철공사)
3위 : 김태훈(대덕군청)

▲ 밴텀급

1위 : 권혁선(대전동구청)

2위 : 이승욱(현대자동차)
3위 : 임성욱(현대전공)
노창식(보령군청)

▲ 페더급

1위 : 임석섭(지하철공사)
2위 : 이선장(대전동구청)
3위 : 김 수(상무)
박성수(부산협회)

▲ 라이트급

1위 : 김명식(상무)
2위 : 권혁훈(제주도협회)
3위 : 민홍주(팔봉전산원)
오원호(언남체육관)

▲ 웰터급

1위 : 이창건(경산시청)
2위 : 이종학(현대자동차)
3위 : 박용웅(대전동구청)
박종상(보령군청)

▲ 미들급

1위 : 방영인(지하철공사)
2위 : 윤순철(상무)
3위 : 류창수(대덕구청)

▲ 해비급

1위 : 김현일(지하철공사)
2위 : 정주석(상무)
3위 : 강철규(금북주)
박만성(강원도협회)

▲ 단체성적
(고등부)

1위 : 대전체고(금2, 은1)
2위 : 서울체고(금2)
3위 : 리라공고(금1, 은2, 동1)
감투상 : 풍 생 고
장려상 : 국 계 고

지도상 : 이계승(대전체고)
우수선수상 : 이동규(대전체고)

(대학부)

1위 : 한국체육대학(금3, 동1)
2위 : 경 회 대(금2, 은2, 동2)
3위 : 관 동 대(금1, 동3)
감투상 : 조 선 대

장려상 : 대한체육과학대
지도상 : 문원재(한국체육대학)
우수선수상 : 박재성
(한국체육대학)

(일반부)

1위 : 지하철공사(금3, 은1)
2위 : 상 무(금1, 은2, 동2)

3위 : 현대자동차(금1, 은2)
감투상 : 대진동구청
장려상 : 제주도협회
지도상 : 김영희(지하철공사)
우수선수상 : 김현일
(지하철공사)

100

92년 7~9월

행사 안내

- ▲ 7.1-3: 제4회 경희대 총장기 대회(국기원)
- ▲ 7.15-17: 베트남 국제태권도 대회(베트남 호치민시)
- ▲ 7.17-18: 제13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전국 국민학교 대회(국기원)

- ▲ 7.20-22: 제16회 연세대학교 총장기 대회(연세대학교 체육관)
- ▲ 8.3-5: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 대회 태권도 시범경기(바르셀로나 팔라우 플라자 우크라이나 체육관)

- ▲ 8.16-23: 제3회 체육청소년부장관기 중외연맹 대회(잠실학생체육관)
- ▲ 9.22-10월: 제72기 지도자 교육(국기원 지도자 연수원)



'94 히로시마 아시안게임 태권도 경기종목 채택

OCA Adopted Taekwondo as a Regular Sport of '94 Asian Games.

태권도가 오는 '94년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아시아올림픽 평의회(OCA)의 셰이크 아마드 회장과 히로시마대회 조직위원회(HAGOC)의 후루하시위원장은 지난 4월 22일 OCA총회가 끝난 다음날 태권도와 세팍타크로, 카바디 등을 종목으로 추가한다고 발표했다.

OCA는 달초 태권도를 제외하고 가라데, 무술 등을 종목으로 채택했으나 협회와 관계기관의 노력으로 종목채택으로 결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올림픽 성화처럼 국제무대에서 태권도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계스포츠인의 대축제 올림픽무대에

Taekwondo Delegation will be participated in Barcelona Olympic Games



△태권도선수단을 이끌고 노태우대통령이 주석규·이성재 코치에게 올림픽무대에서 88서울올림픽의 영광을 거둘 수 있도록 전진을 다짐해주길 당부하며 격려했다.



△88년 하계올림픽은 7월 25일부터 8월 9일까지 총 16일간에 걸쳐서 마르셀로나 문주의 주경기장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출전하는 한국대표선수단



제25회 올림픽대회 태권도 경기

- 경기일정: 8.3-5
- 장 소: 바르셀로나 팔라우
블라우그라나 경기장



서성교(플라이급)



모선영(권급)



김병철(슈퍼급)



황은숙(웬터급)



하태경(웬터급)



정은옥(라이트급)



김재경(헤비급)



이선희(미들급)

서울지하철공사 · 대전체고 만년2위 설움받고 우승 한국체대 2년만에 정상 재등극

The 27th Presidential Flag Taekwondo Championships.

제27회 대통령기 전국단체대항 태권도 대회
6. 19 - 22, 제주한라체육관

▼ 전국 104개팀에서 701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열린 개회식에서 대표선수 선서를 받고 있는 최세창 회장



▲ 개회식에는 최세창회장을 비롯해 제주도 우근민지사 등 제주지역의 모든 기관장들이 참석해 대회개최를 축하해 주었다.



▲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하는 선수들.



▶ 대전체고가 지난 6년간 입상권에 머물다 올해 드디어 우승기를 차지했다.



◀ 대회를 주관한 제주협회 정이수 회장이 한국체대의 문원재교수에 우승컵을 수여하고 있다.



▲ 창단 6년만에 첫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서울지하철공사

4년만에 부활된 전국 체육 꿈나무들의 축제

21st National Junior Sports Festival

제2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태권도 경기

6. 13-15, 대구체육관



▲ 15개 시도대표가 참가하여 열전을 펼쳤다.



▶ 선수들은 승리와 패배의 사이클속에 기량을 쌓아간다.



▲ 대구시협회 이신우회장에 감사패를 증정하는 홍중수 부회장



▲ 금메달을 목에 건 중등부(11체급) 체급별 최강자

'92년도 전국 종별 태권도선수권 대회
 고등부 : 4. 6-10, 올림픽제2체육관
 중등·일반부 : 4. 14-16, 국기원

National TKD Championships for the
 Newface 1992.

1683명의 신인 선수들이 출전한
 태권도 최대 규모대회.
 최대집전은 208명이 출전한 고등부 편급으로
 동성고의 소병관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다.



▲오른발 돌려차기를 몸통에 적중시
 키며 득점을 얻고 있는 흥팀선수



▲ 고등부 체급별 우승자



▶ 쌍백을 이루는 발차기

전국여자개인선수권대회

5. 13-14, 국기원

'92 National Women's Taekwondo Championships.

신인들이 전국가대표를 누르는 이번을
남으면서 흥미진진하게 쳐루어져



▲대표선수 선서



▲8명의 체급별 우승자중 경희대가 4명의 우승자를 배출했다.

학교연맹대회

제19회 전국대학개인 태권도대회 겸
제3회 세계대학태권도 선수권대회
한국대표선수 선발대회

4. 23-25, 국기원

- ▶ 남여 체급별 우승자는 오는 10월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열리는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 출전하게 된다.



제13회 태권왕 겨루기
전국 국민학교 태권도 대회
5. 9-10, 한양대체육관

이번 대회 종합우승은 경기서동국민학교와
서울 감덕국민학교가 차지했다.

- ▶ 메달을 목에 건 어린이들의 모습이 얼마나 당당하고
대견스러운가.





▲각계인사들이 개막식에 참석해 대회 개최를 축하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제19회 중고연맹회장기
태권도 대회
5. 25 - 29, 잠실학생체육관



▶이유생 회장이 남고부 종합우승을 차지한 송곡고에 우승기를 수여하고 있다.



▲ 개회식에서 대회를 하는 모습

제2회 대한체육과학대학 총장기
전국남녀고교 태권도대회
4. 29-5. 2, 국기원

The 2nd Korea Sports Science Univ.
President's Flag TKD Championships.



◀ 대전대성고팀에 우승기를 수여하는
대한체육과학대학 이규석교수
(아시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 선수들의 불꽃튀는 집전으로 경기장은 열광의 도가니



▼ 여고부 종합우승은 고양여중고, 2위 광명여상, 3위 천안고교와
혜성여고

